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6월 모의평가

분석 : 큰울림 국어 연구소  
유대중, 강세진

## \* 마음가짐에 대하여

시험 치느라 힘들었죠?

다음의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 ① 시간은 모자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씩 틀렸다. : 이제부터 선지 하나라도 대충 읽지 맙시다.
- ②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멍 때리고 온 것 같다. : 글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세요.
- ③ 문제가 길어 보여서 포기했다. : 지문 분석이 정확이 되었다면, 문제가 아무리 길어도 쉽습니다.
- ④ 문법 문제가 힘들었다. : 지식을 더 채워 넣어야 합니다. 문제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풀어 주세요.
- ⑤ 난 너무 완벽하게 깔끔하게 끝냈다. : 이제 앞으로 고난도 문제를 연습하세요.

이번 시험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역대 문학 문제 중 가장 쉬운 작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대충 보면 딱 틀리기 좋은 선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법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매우 쉽지만, 실수를 하기 딱 좋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작품인데, 이상하게 선지가 읽히지 않는 마법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험에는 위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로 합시다. 약속해요.

차분하게 읽어요. 시험 시간을 날리지 말아요. 맞힐 수 있는 문제는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맞혀요.

좌절하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무엇을 못했는지는 알아가기로 합시다.

그럼 이제 시작할 테니 한 문제씩 정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 1. 화법 - 작문의 연계 총평

## [1~3] 강연 (총 3문제)

지문의 난도가 어렵지 않다. 작년 시험을 보았던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듯하다. '야생 조류'와 '유리창 충돌'은 독해를 해야 할 만큼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 [4~7] 토의 - 작문 (총 4문제)

본래 '토의'는 가장 어려운 지문으로 구성이 가능한 담화이다. 그러나 최근 제시된 '토의'는 대체로 작문을 위한 가벼운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쓴 글 역시 어렵게 쓰여 있지 않고 가볍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의에 따라 문단이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제에서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7번'으로 기존 조건 문제보다 좀더 조건을 까다롭게, 그리고 문장을 길게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8~10] 작문 (총 3문제)

지문의 난도는 어렵지 않지만, 기존과 다르게 개요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요가 없을 경우 체계는 주제에 맞추어 다시 잡아야 하며, 떠올리는 생각과 비교를 해야 한다. 더구나 해당 작문은 '자기 점검'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글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고, 수정이 필요한 글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당 지문에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9번'이다. 추론 능력도 필요하며, 왜 이렇게 써야 하는지 '주제'에 맞추어 생각해 봐야 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 (1) 문제 분석

## 화법 : 1번 [난도 : 해]

'강연'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강연에서 용어를 제시하여 정의하였는가?
  - ② 청중의 응답이 있는가? -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는가?
  - ③ 청중의 배경지식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 ④ 강연 내용의 순서가 앞부분에 있는가?
  - ⑤ 강연 내용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이 있는가?
- 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은 해당 지문을 파악하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을 경우, 해당 선지를 지문에서 확인하지 않았는지.

후시라도 없는 부분을 있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화법 : 2번 [난도 : 중해]**

보통 '학생들이 강연을 들은 후 떠올린 생각'은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길 마련입니다. 그런데 해당 듣기 활동은 단순한 내용 위주로 적혀 있으므로, 한 번씩 읽어 보고 선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 ①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다.
- ② 비둘기와 야생 조류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고 있다.
- ③ 자외선 반사 테이프의 유용성에 대해 감탄하고 있고, 자신도 참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 ④ 유리창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 자신도 해 보겠다고 의지를 표하고 있다.

입니다. 듣는 학생들의 생각과 태도를 위주로 적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을 경우, 위의 내용처럼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보기>의 내용을 넘기지 말고, 학생들의 반응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해 보세요.

**화법 : 3번 [난도 : 중해]**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문제는 난도가 높게 출제됩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 자료 모두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일부 자료만 제시되었기 때문에 접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훨씬 쉽다는 의미이지요.

<자료 1>은 분석하면 바로 '시야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의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료 2>는 분석하면 바로 '자외선'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의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면, 정답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을 경우, ㉠과 ㉡의 화제를 찾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독해의 기본은 화제를 찾는 법입니다. 문단 독해 해석력을 늘리기 바랍니다.

**화법-작문 : 4번 [난도 : 중]**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각 학생들이 한 말에 대한 판단 여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생각해 볼 만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대체로 '주제'를 헛갈리게 적어두거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판단이 없는 내용인데 판단이 있다고 구성될 때도 있으니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을 경우, 미친 듯이 선지를 끌어서 문맥을 고려하고

최후의 최후로 이상한 것을 고르는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화법-작문 : 5번 [난도 : 중해]**

이 문제는 작문 개념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문제로 구성되지 않은데, 특이한 문제입니다. 하나씩 소개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 ① 우려되는 문제 상황을 가정하였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는가?
- ② 상대가 제시한 의견의 문제를 지적하였는가? 상대에게 해결 방법을 제안하였는가?
- ③ ㉠과 달리, ㉡은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였는가? 아니면 ㉢도 물음의 형식이 있는가?
- ④ ㉠과 달리, ㉢은 상대에게 되묻고 있는가? (반문의 개념을 아는가?) 아니면 ㉡에도 있는가?
- ⑤ ㉠과 ㉢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있는가? 상대방에게 조언을 요청하는가?

입니다. 주로 일치-불일치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도 깔끔하기 때문에 헛갈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식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채워 넣어 두세요.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오답정리를 확실하게 해 두길 바랍니다.

**화법-작문 : 6번 [난도 : 중]**

[B]를 읽었을 때 정확히 읽어 [C]와의 차이를 인지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치 문제이며 소개하면서 풀면 됩니다.

- ① 제당과 문화제에 열리는 다양한 행사가 있는가?
- ② 산할머니의 일화가 은행나무에 담겨 있는가?
- ③ 사랑시의 명칭이 변화되어 온 과정이 있는가?
- ④ 바람맞이 언덕은 사랑시의 전통을 보여주는가?
- ⑤ 제당에서 바람맞이 언덕으로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경로가 맞는가?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하여 접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일치-불일치 문제가 약한 것이니

글을 그대로 읽고 사실을 판단하는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화법-작문 : 7번 [난도 : 중]**

<보기> 조건 문제가 지문에 있는 경우로 형식만 바뀌었을

뿐, 묻고자 하는 의도는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정리하여 그 조건에 맞추어 선지를 골라내면 됩니다.

- ①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낸다.
- ②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문구에 포함한다.
- ③ 대조의 표현 방식을 쓴다.

이 중에서 ③을 가지고 고르는 것이 쉽습니다. 다음으로는 ②번입니다. 그리고 까다롭게 봐야 하는 기준이 ①이지요. ③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지를 골라내야 위로 갈수록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최근 기출 문제 중 <보기> 조건 문제만 한꺼번에 풀어보기를 추천합니다.

#### 작문 : 8번 [난도 : 중해]

‘글의 초고’는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개요나 생각을 상상하여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최근 기출 문제 중 개요 - 글 확인하는 문제만 한꺼번에 풀어보기를 추천합니다.

#### 작문 : 9번 [난도 : 중]

딱 작문스러운 문제입니다. 매우 잘 만들었으며, 학생들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소거로 찾기보다는 이 녀석이 딱 답이지라는 느낌으로 찾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글을 비교하며, 전체 맥락을 잡아가며, 왜 고쳤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주제에 맞추어 개요를 짜고, 개요에 맞추어 글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실제로 글을 썼어야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므로, '상상'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작문 : 10번 [난도 : 중해]

10번 문제는 작문 문제라고 말하긴 어렵고, ‘인문’ 지문에서 항상 나오는 <보기> 훈련 지문과 유사합니다.

<보기>를 제대로 분석하고 핵심을 딱 찾아 답을 딱 골라내면 됩니다.

해당 <보기>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은 유지’,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상상력이 발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윗글은 이러한 말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기>의 맥락과 동일한 선지를 골라

내면 된답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작문 공부보다 '인문' 위주의 지문을 읽고 관점을 갖고

판단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 (2)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

- ① 화법 : 전반적으로 난도가 작년보다 낮습니다. 고난도 문제가 적으며, ‘자료 활용 능력’이라든가 ‘고쳐 쓰기’와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 ‘토론, 토의, 면접, 발표’ 등 다양한 제재를 담고 있는 담화 유형을 중심으로 공부하길 바랍니다.
- ② 작문 : 작문 역시 화법만큼 지문 난도가 낮습니다. 다만 까다로운 문제는 있으니, <보기> 조건 문제를 확인한다거나 개요에 따라 주제를 생각한다거나와 같은 능력은 꾸준히 키우길 바랍니다.

## 2. 문법 총평

### [11~12] 어미와 접사 (총 2문제) 형태론 + 문장론 + 중세국어

해당 주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다. 아직도 이 부분이 어려운 학생은 미루지 말고, 오늘 해결하자.

중세 국어와 결합되어 있지만, 중세 국어의 일부만 알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다. ‘모음조화’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것 말고는 사실 중세 국어 문법을 몰라도 지문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접사, 어미’와 같은 용어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는지 건지 반성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13번] 한글 맞춤법 - 사이시옷

사이시옷과 관련된 내용은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조건에 맞추어 풀면 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한 번도 해당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면 당황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보기>에서 아래의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한다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하나씩 소거해 버리면 바로 문제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번에 틀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단어의 형성’ 파트를 다시 공부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규정은 안다고 해서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며, 까다로운 문제에 속한다.

### [14번] 음운론

혹시라도 잘못 읽어 틀린 것이 아닐까 바랄 뿐이다. 음운 변동은 음운론의 기본이니 아주 가볍게 풀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나왔던 음운론 문제 중 쉬운 쪽에 속한다.

### [15번] 선어말 어미 + 의미론

해당 내용은 신유형인 척 착각하게 만드는 <보기> 조건 문제이다. ㉠~㉣의 조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소거하며 문제를 맞히는 유형이다. 이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까다로운 문제에 속한다.

### (1) 문제 분석

#### 문법 : 11번 [난도 : 중]

제작년 수능 문제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접사’와 ‘어미’의 차이는 형태론에서 꽃 중의 꽃이므로 어려우면 지금 당장 다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렸다고 울지 말고 다시 보자는 의미입니다. ‘접사’와 ‘어미’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문제이지요.

그리고 중세 국어랑 결합하였다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세 국어 문법’의 활용이 아닙니다. 현대 국어를 토대로 모양만 확인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그 이유는 중세 국어 때문이 아니라, ‘현대 국어’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형태론’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더 복습하러 가세요!

#### 문법 : 12번 [난도 : 중해]

12번 문제는 ㉠과 동일한 것을 연속으로 2개를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4개의 선지에는 1개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며 동시에 ‘어미’가 아닌 ‘접사’ 4개를 찾아도 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을 고집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소거만 잘하면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모르면 ‘고난도 문제’이지만, 알면 ‘쉬운 문제’로 바뀝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11번과 마찬가지로 다시 복습을 하고

형태론 기출 문제를 다시 한 번 풀어보세요.

#### 문법 : 13번 [난도 : 생]

사이시옷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출제는 되었습니다. ‘표준 발음법’ 또는 ‘한글 맞춤법’을 공부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은 이미 접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물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시옷은 ‘맞춤법’처럼 ‘사이시옷’이 있는 것이 맞을까? 없는 것이 맞을까?로 들어가는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에 있는 것은 꼭 다 외워 버리세요.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비교 분석부터 시작하여 헛갈려서 틀렸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잇소리 현상에 대해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 문제를 알아서 틀렸다면, 차근차근 소거하는 법을 배우길 바라며,

이 문제를 접근조차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제대로 배우고 맞으면 됩니다.

#### 문법 : 14번 [난도 : 해]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을 비교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탐구 내용’의 기준을 맞추어 파악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 선지도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제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 문제였지요.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탐구내용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푸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풀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몰라서 풀었다면, 음운 변동을 공부하려 갑시다!

### 문법 : 15번 [난도 : 중]

해당 문제는 조건 문제입니다. ㉠~㉣을 중심으로 조건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은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미래의 일이 조건이며,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면 됩니다.

㉡은 1인칭 주어, 그리고 본인, 평서문이 조건입니다.

㉢은 의문문이어야 하면 2인칭 주어가 조건입니다.

㉣은 수사 의문문에 1인칭 주어이면 됩니다.

㉤은 꿈속의 일,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 그리고 화자의 행동, 상태, 그리고 1인칭 주어와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학생 여러분, 왜 이 문제에 이렇게 조건이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처음 나온 유형이라서 그러합니다.

문학에서 ㉠~㉣ 범주 문제 풀 때 쉽게 해결하죠? 그것과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조건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조건에 맞추어 생각하고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답을 고르는 훈련을 해 주세요.

### (2)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

- ① 이번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을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 ② 중세 국어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중세 국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공부해 주세요.
- ③ 나머지 규정도 확실하게 공부해 주세요.
- ④ 모르는 부분은 채워 넣어 주세요.
- ⑤ 그렇게 우리 지금부터 딱 1개월 간 확실하게 공부합시다!!
- ⑥ 6월 모평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 3. 독서 총평 : 총 15문제

#### [16~21] 인문 (총 6문제) (EBS 연계) - 개념 연계 + 1문제 (어휘 포함)

최한기와 관련된 내용이 EBS 지문에 있기는 하지만, '신기'와 관련된 연계만 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해당 지문은 '우리나라 의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큰 맥락이기 때문에 얼마큼이나 도움을 받았는지는 오히려 미지수이다.

지문 구성은 종래의 인문 지문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과학 지문과 유사한 경향도 보인다. 대체로 인문이라 하면 정의가 많고, 해당 정의에 따라 구체화하는 글이 전개되길 마련인데, 각 사람의 의견과 더불어 자신의 기존 관념과의 비교, 시간 순서에 따른 배열, 비교와 대조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전체적으로 문제도 내용도 평이했기 때문에 특별히 참고해야 할 만한 지문이나 문제는 없다.

심지어 어휘 문제도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22~26] 사회 (총 5문제) + 1문제 (어휘 포함)

사회 지문 중 가장 기본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케이스를 주고, 그에 따라 화제를 밝힌 다음, 필요한 개념을 하나씩 '차이'에 따라 밝히는 지문이다. 이미 기존에 많이 나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만 나갔더라면 충분히 오해 없이 답을 고를 수 있는 지문이다.

이 지문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23번과 25번이다. 해당 문제는 킬러 문제라 볼릴 정도로 어렵지는 않지만, 해당 법규의 특징을 몰랐다면 틀릴 수밖에 없는 지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니 틀렸다면 오답 정리를 꼭 할 것!

#### [35~38] 기술 (총 4문제) (EBS 연계) - 개념 연계

기술 지문은 기존의 기술 지문과 비슷하게 어려운 개념으로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초반에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말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우며, 선지 역시 사실 판단 문제 없이 추론해야 하거나, 조건에 따라 재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능 90점대 이후가 목표인 학생들은 필히 기술과 과학 지문처럼 정보량이 많은 지문 대응력을 기르기 바란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없기 때문이다.

해당 지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전체 다 인데, 그 중에서 37번 문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합 문제는 매번 나오지만 B를 먼저 보느냐, A를 먼저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주목하면 좋은 문제는 38번 문제 케이스 문제이다. 실제로 이해가 된다면 소거로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으나, 매력적인 함정 선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볼 수밖에

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해당 지문은 심지어 EBS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찾아내는지 과정에 따른 내용도 아니며, 전혀 다른 LFIA 키트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연계 체감율은 매우 적을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뽑아내는 훈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문제 분석****독서 : 16번 [난도 : 중해]**

보통 전개 방식 문제는 보너스 문제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갈리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문의 구조만 분석이 되었다면, 빠르게 소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① 분화하는 과정이 있는가? 서양과 대조하고 있는가? 단계적으로 서술하였는가?

②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가 있는가?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가?

③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에 문제점이 있는가? 열거가 있는가?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도 하는가?

④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가 있는가?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가?

⑤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 인체관을 정리하였는가? 인과적으로 설명하였는가?

이렇게 쪼개서 판단하도록 훈련을 한 다음, 빠르게 소거해야지만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기출 문제 중 '전개 방식'과 관련된 문제만 다시 한 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독서 : 17번 [난도 : 중]**

사실 해당 문제는 읽었으면 맞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면, 또는 어느 문단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다면, 답을 골랐을 때 헛갈릴 수 있는 문제이지요.

일치-불일치 문제는 독서에서 기본 문제이며, 특히나 해당 선지는 조건 문제도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지문에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 독서의 기본기가 부족한 경우이니, 제재를 가리지 말고, 일치-불일치 문제만을 연습하여 빠르게 소거하는 법과 빠르게 찾는 법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독서 : 18번 [난도 : 중해]**

이제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일치-불일치 중에서 교육청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해당 문제는 읽으면 소거가 가능하므로,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접근하길 바랍니다.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 역시 독서의 기본기가 부족한 경우이니, 제재를 가리지 말고, 일치-불일치 문제만을 연습하여 빠르게 소거하는 법과 빠르게 찾는 법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독서 : 19번 [난도 : 중]**

해당 문제는 '최한기'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파악하면 안 됩니다. '최한기'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야 하며, 여기에 등장하는 '이익'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을 고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신기'가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익숙했을 것이기 때문에, ㄴ, ㄷ, ㄹ 중 정확하게 맞는 것과 문제가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은 기존 사회, 인문 지문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조합 문제로 풀기보다는 확실히 스스로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파악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합만 어렵게 짜면 중에서 바로 중상으로 바뀌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 지문 이해도가 낮으며, 골라냈을 때 선지 분석력도 낮은 경우입니다.

꼭 다시 분석하기를 권유합니다.

**독서 : 20번 [난도 : 중상]**

해당 문제는 인문 지문의 단골 문제인 <보기> 문제입니다. 비교 문제이며, 특징을 고려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접근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며,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 인문 지문과 사회 지문 중 <보기>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어보길 바랍니다. 또는 ㉠과 ㉡ 범주 문제도 같이 풀어도 괜찮습니다.

**독서 : 21번 [난도 : 중해]**

어휘는 보통 어려운 걸로 많이 나오는데, 해당 단어는 기존에 많이 나왔던 기출 단어들입니다. 해당 단어를 집어 넣고, 문맥을 확인하는 과정만 거치면 되는 문제이지요.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독서 : 22번 [난도 : 중]**

해당 문제는 지문을 구조화하여 풀었다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비례 원칙'이라든가, 각 법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절대 풀어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 지문은 1문단과 2문단의 이해력이 부족할 경우 다음을 읽어도 동그라미만 체크되어 있을 뿐,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문장을 끊거나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접하길 바랍니다.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 1문단과 2문단을 두고 전체를 까는 연습,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야 실력이 늙니다.

**독서 : 23번 [난도 : 중상]**

이 문제도 참 좋은 문제입니다. 교합만 좀 더 어렵게 냈더라면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문제이지요.

[A]를 조건에 따라 다시 판단하는 문제인데, '법적 불이익'이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해보다는 문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실력을 기를 때는 지문의 이해도를 높여 자신의 기준에 따라 답을 확실하게 고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 조합 없이 왜 틀리고, 왜 맞았는지 기준을 다시 세워 보세요. 그리고 선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봐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눈에 보일 것입니다.

**독서 : 24번 [난도 : 중]**

항상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공통점 찾기와 차이점 찾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과 ㉡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들의 공통점을 문맥에서 확인해야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절대 당황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특히나 공통점을 찾으라는 문제는 반대로 차이를 인지하여 소거할 때 더욱 빠르게 풀 수 있으니 편한 방식으로 접근하길 바랍니다.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 비교와 대조를 보는 관점이 깊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A와 B를 두고 읽을 때, 차이점도 차이점이지만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독해하는 습관을 기르길 바랍니다.

**독서 : 25번 [난도 : 중상]**

좋은 문제입니다. A와 B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며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합을 고려하여 문제를 맞히면 됩니다. 이때 선지가 고려해야 하는 점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 ① 사법의 적용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 ② B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것,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였는지? 인정하지 않았는지?
- ③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것,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효로 판결한 것인지? 아닌지?
- ④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

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인 것과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한 것인지? 아닌지?

- ⑤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인지? 아닌지?

이렇게 다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문 내용이 이해가 되면, 사실 쉽게 지워집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가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또는 <보기>에서 묻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다시 지문을 읽어서 확실하게 맞는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독서 : 26번 [난도 : 중하]**

해당 문제는 이미 기준에 기출로 나왔던 단어입니다. 다의어는 문맥적 상황을 고려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면 나아집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반드시 오답정리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독서 : 35번 [난도 : 상]**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 항상 나오는 유형의 일치 문제입니다.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되어 있으며, 구성은 보통 조건으로 이루어진 일치-불일치 내용입니다. 보통 깔끔하게 해결되는 선지는 1~2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읽었을 때 착각하여 다른 것을 고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확실한 이해, 그리고 선지 분석력, 판단력이 고루 필요한 선지이지요. 헛갈릴 경우는 붙잡고 생각하면 위험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확실한 것만 소개하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이해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법과 관련된 지문, 과학 원리 지문, 기술 지문 위주로 일치-불일치 부분을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조건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독서 : 36번 [난도 : 상]**

㉠과 ㉡ 범주 문제는 문학과 인문 지문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과정'을 확인해야 하거나 다른 문단과 교차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일 경우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바뀝니다. 해당 부분도 그러합니다.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은 '방식에 따라 검사

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징은 매우 까다롭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단번에 이해하여 풀면 매우 좋고요. 아니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당황하면 어렵게 풀리는 문제이지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하여 하나씩 지워 봅시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힘들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과 ㉡의 분석하는 문제 위주로 재연습해 보세요. 선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 독서 : 37번 [난도 : 생]

제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워낙 쉬운 문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보너스 문제와 같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A를 제대로 분석해도 B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민감도가 높다는 말과 특이도가 높다는 말을 '진양성, 진음성', 그리고 '위양성, 위음성'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아래의 선지를 보는 것보다, 제대로 적어내는 것이 실력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에 몰입해 주세요. 선지로 판단하지 말고, 지문을 통해 분석하여 주관식으로 써 보세요. 좀더 나은 실력자가 될 것입니다.

#### 독서 : 38번 [난도 : 생]

이제 키트를 이해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 문제는 어렵습니다. 줄글이라서 사실 계산 문제는 없지만, 지문 이해도가 낮으면 적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 특징을 파악하여, 지문의 내용과 비교한 다음, 선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그래도 '적절하지 않은 문제'라서 다행입니다. 이해와 더불어 적용할 때, 적절한 문제를 고르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지요.

해당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가 키트에 대한 기준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정확도가 낮으나 살모넬라균만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다는 설명의 기준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스스로가 정보량이 많은 지문 대응력이 있는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는 <보기> 실력을 아무리 능력도 지문 대응력이 부족하면 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이지요. 가장 어려운 문제라도 풀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2)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

- ① 이번 지문에서는 '인문, 사회(법), 기술' 지문이 나왔습니다. 9월에는 또 다른 구조로, 수능 때는 가장 어려운 구조로 나올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여러분이 풀었던 독서 지문보다 더 어려운 구조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 ② 독해를 게을리 하지 마세요. 다양한 제재에 익숙해지세요.
- ③ <보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④ 강점은 확실하게 강하게 준비하고, 약점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합니다.
- ⑤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키웁시다. 문제의 핵심을 모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실수가 납니다. 소거하는 힘을 기르세요. 단 번에 고르는 연습도 좋지만, 문제 대응력은 '소거'에서 나옵니다.
- ⑥ 빠르게 풀지 말고, 차분하게 독해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시간에 쫓기면 글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⑦ 6월 모평은 그 동안의 공부 방식이 맞았는지 중간에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약점을 잡고 9월 모평을 준비하러 갑시다! 힘냅시다!

## 4. 문학 총평 : 총 15문제

[27~31] 현대시 & 수필 (갈래 복합) (총 5문제)

- (가) 박봉우, 「휴전선」 (EBS 연계) - 전문 연계
- (나) 배한봉, 「우포늪 왓새」
- (다) 김기림, 「주은은천행」

현대시 중 한 작품은 EBS 연계 작품이다. 그러나 「휴전선」이란 작품은 처음 보았을 지라도 난도 자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6.25전쟁을 연상하여 풀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나) 시다. 재작년부터 비연계 쪽 작품이 쉽지 않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 듯 말 듯한 느낌으로 풀어내야 하는 시들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필도 좀 더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볼 때 문학 작품은 전반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지금 초반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당 수준의 스킬을 요구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감도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32~34] 고전 시가 (3문제)

- (가) 작자 미상, 「서경별곡」 (EBS 연계) - 전문 연계
- (나) 조위, 「만분가」

고전 시가도 EBS 연계 작품이 수록되었다. 「서경별곡」은 잘 수록되지 않은 작품인데, 이번에 각주 없이 수록되어 있다. 여러 번 학생들에게 언급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EBS 연계의 무서움을 모른다면 꼭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다. EBS 연계된 고전시 가 작품은 각주가 나오지 않으니 확실하게 공부할 것!

이번에는 기존에 기출 되었던, 「만분가」도 같이 나왔다. 심지어 수록된 부분도 거의 유사했다. 이미 기출 문제를 분석한 학생이라면 접근하기 어렵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원문 해석력을 기르길 바란다.

[39~42] 고전 소설 (4문제) : 작자 미상, 「옹고집전」 (EBS 연계) - <보기> 연계

「옹고집전」은 고1, 고2 단골 지문이다. 이번 수능특강에도 수록되었지만, 지난번에도 종종 연계 된 작품이기도 하다. 내용 자체는 초등학교 때 접할 정도로 매우 쉽다. 그런데, 문제는 수록된 지문을 어떻게 분석할까에 있다. EBS 수록된 작품 내용은 해당 지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보기>에만 연계되어 있다. 즉, 작품 이름만 같고 지문은 비연계라 할 수 있겠다.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문제 자체가 세밀하게 묻고 있기 때문에, 한자 대응력, 문장 대응력, 상황 대응력 모두 키워 놔야 빠르게 접근이 가능했을 것이다.

[43~45] 현대 소설 (3문제) : 양귀자, 「한계령」 (EBS 연계) - (중략) 이후 일부 연계

「한계령」은 이미 예전에도 종종 출제되었던 작품이다. 그리고 작품 난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 나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해당 지문은 (중략) 이후 일부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지문을 읽어두었다면, 더욱 빠르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연계 작품을 공부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함임을 잊지 말자.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현대 소설 지문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므로, 평소에 인물 위주로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꼭 키우길 바란다.

**(1) 문제 분석****문학 : 27번 [난도 : 중해]**

문학 비평 이론 중에 난도가 좀 있는 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작품 모두 제대로 해석했다면 충분히 맞힐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선지에 구성된 내용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력도 꾸준히 길러야 이러한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력도 같이 생깁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몰랐던 선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오답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문학 : 28번 [난도 : 중]**

보통 이와 같은 표현상의 특징은 단번에 소거하여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제는 출제자 의도가 더 담겨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순간 헛갈렸다면 당황하여 잘못 골랐을 가능성이 큼니다. 문제는 제대로 맞혀야 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하여 골라내도록 합시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몰랐던 선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오답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문학 : 29번 [난도 : 중상]**

해석을 기반으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문득 보면 선지가 길어 어려운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선지를 쪼개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는 유형입니다.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만 제대로 파악하면 충분히 소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진지하게 선지를 끊어 해석하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해당 문제는 오로지 답이 하나로 귀결되는 유형이며, 단점이 하나 있다면 길이가 길 뿐이니 끊어서 빠르게 판단하는 연습만 하면 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학 : 30번 [난도 : 상]**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은 <보기>와 시 해석 능력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 문제는 시를 제대로 해석하였다면 답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 시기에 나와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학생들은 시를 해석하기보다, 줄글 읽듯이 느낌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요즘 문제에서 추구하는 유형이니, 줄글로 읽지 말고, 정확하게 화자와 대상의 입장을 확실하게 한 다음 선지를 분석하

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기존 기출 문제를 위주로 다시 연습하기를 추천합니다. 해당 선지 스타일은 이미 2014년도부터 나왔던 유형입니다.

**문학 : 31번 [난도 : 중]**

이런 문제가 제일 짜증나는 유형입니다. 지문에서 찾기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는 유형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왕도가 없습니다. 빠르게 지문에서 찾아 소거해 버려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각각 모든 것을 찾겠다고 시간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주의 또 주의!

만일,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시간을 잡아먹고 틀렸는지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수필을 독서 분석하듯이 문단별로 일정 부분 체크하여 파악해 들시다!

**문학 : 32번 [난도 : 중해]**

각주가 없어서 어려웠다면, 이제부터 공부하러 갑시다. 각주만 제대로 공부했다면, 해당 문제 정답은 ④번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을 만큼 난도가 매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은 화자라는 주체 위주로 확인하면 되는 선지입니다.

②는 화자라는 주체를 생각하면서 회피하고 싶은 것인지 판단하면 되는 선지입니다.

③은 '임의 심정'인지 '화자의 심정'인지 판단하면 되는 선지입니다.

⑤는 해당 행동을 하는 주체를 생각하며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있는지 여부로 접근하면 되는 선지입니다.

만일,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각주를 못 외워서 틀린 것인지, 선지를 착각해서 틀린 것인지 스스로가 한 실수를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문학 : 33번 [난도 : 중]**

표현상의 특징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으며, 문맥을 통해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작품 해석이 어려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고전 시가 공부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전 시가는 기본이 문자에 대한 해독력입니다. 아래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맥을 통해 추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주세요.

만일,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이는 연습이 부족한 것입니다. 고전 원문을 두고 해석하려는 능력을 같이 키워주세요.

**문학 : 34번 [난도 : 중]**

이 문제는 <보기>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지문이 어려웠던 것도 아닙니다. 소거하면 정답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순간 선지에 흘려 답이 안 보였을 가능성이 큰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선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 '붉은 마음' 모두 '굳어져 보이기 때문에' 마치 바위로 형상화한 것처럼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과 붉은 마음 모두 끈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즉, 빳빳 대상을 정확히 인지했는가의 여부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에 속지 말고, 해석한 내용을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순간 착각에 의한 것인지, 진짜 몰라서 틀린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문학 : 39번 [난도 : 중상]**

간단하면서도 재치 있는 문제입니다. 고전소설 어투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참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송사 가는 이는 누구인지, 행인들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문의 내용과 같이 생각해 내야 하는 문제이지요. 지문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다만, 누가 이런 말을 하는지, 누구에게 하는지를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석에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육하원칙을 따지면서 지문을 해독해 보세요.

만일,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이때가 기회라 생각하고 어려운 고전 소설 지문 위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문학 : 40번 [난도 : 해]**

㉠~㉢ 문맥 상황 판단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 주변의 문맥을 파악한 다음에 선지의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만일,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실수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문학 : 41번 [난도 : 중]**

<보기>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소외'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선지가 길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최근 문학 트렌드는 이렇게 선지가 긴 것에서 비롯됩니다. 함부로 읽지 말고, 끊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읽어 주세요.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맞는 것이 골라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소거하고, 또 골라지면 소거하는 식으로 실수를 없애고 올바른 답으로 가길 바랍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일,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선지가 긴 문학 문제만 골라 한꺼번에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문학 : 42번 [난도 : 생]**

문제의 의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기 때문에 의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는 그것이 무기입니다. <보기>의 내용은 연계 지문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미 읽었던 [B]와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해당 문제는 이본과 교합하여 비교한 다음, 선지의 내용을 읽고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의미이지요.

차분하게 읽으면 답은 오로지 하나이며, 41번과 같은 유형입니다. 길다고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이해합시다!

만일,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지문 해석력이나 선지 분석력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채워 넣어 실력을 기르길 바랍니다!

**문학 : 43번 [난도 : 중해]**

서술상의 특징은 매번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를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독백적 진술'과 '인물의 내면 심리'의 관련성, '삽화 나열'과 '지연'의 관련성,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와 지문과의 관계성' '서술자'와 '다양한 인물의 변화' 그리고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지의 관계성, 마지막으로 '서술자가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했는지의 여부'와 '다른 인물에 대한 생각'과의 관계성 등, 문맥 자체를 고려하여 생각하는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삽화, 독백, 이야기 외부의 서술' 등의 개념 내용만 파악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도 고려하길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난도 자체는 변수가 워낙 깔끔하게 제거되기 때문에 쉬운 편이므로 혹시라도 틀린 학생이라면 개념에 문제가 있는지 맥락에 문제가 있는지 선지를 분석하여 접근하길 바랍니다.

만일,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적어도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복습해 주세요.

**문학 : 44번 [난도 : 중해]**

이 문제는 '인물'에 대한 분석력이 있다면 매우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소거하여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답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이지요.

만일, 해당 문제를 틀렸다면, 소설 공부를 할 때,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보며 인물의 성격은 어떠한지 이들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분석하길 바랍니다.

**문학 : 45번 [난도 : 중상]**

좋은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풀었다면 매우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보기>에서 추구하는 것은 '양면성'의 의미와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서술자 '나'가 행동하거나 생각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선지에서 '양면성'을 분석하고 지문과 매칭할 경우 아주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혹시라도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양면성'의 의미인 '대립적인 두 의미를 동시에 찾는다'에 주목하였으면 합니다.

**(2)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

- ① 작품에 대한 해석력을 키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작품 해석력을 높여 주세요. 요즘 비연계 작품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 ② 수능특강과 앞으로 나올 수능완성에 수록된 작품은 완전히 이해합니다. 지문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똑같은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③ <보기> 문제 유형은 기존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선지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선지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도록 합시다.
- ④ 독서와의 연계가 없다고 해서 나오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준비해 두세요.
- ⑤ 이번에 수록된 작품은 모두 어느 정도 쉬운 작품 위주였습니다. 앞으로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려운 작품 위주로 체크 또 체크해 주세요!

**5. 결론**

이번 6월 모평 참으로 힘들게 봤을 것 같습니다. 화법 작문은 기존보다 쉬워 잠시 기뻐지만, 문법에서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었고, 급하게 풀었다면 실수가 날 수 있을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학 작품은 대체로 쉬웠습니다. 그러나 비연계 작품이 만만치 않았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선지가 길어져서 시간 때문에 급하게 읽었다면 이 역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서는 평이했습니다. 기술 지문은 복잡하게 지문을 잘 써내려갔는데, 고난도 킬러 문제 자체가 없어서 작년보다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난도만 본다면, 화법은 중하, 작문도 중하, 문법은 중~중상, 문학은 중, 독서는 중~상까지 고루 나온 듯합니다. 다만 여러분도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지문의 배치 문제의 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글자 수가 작년보다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모자랐다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무엇을 읽는 데 오래 걸렸는지, 어떻게 하면 좀더 줄일 수 있는지, 앞으로 남은 3개월 간은 부족분을 채우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9월 모평 때 다시 하지 않기로 하지요~.

앞으로 절대 잊지 말 것!

- ① 급하다고 대충 읽지 말자!
- ② 도중에 급하다고 느껴지면 1문단만 차분하게 2번 읽는다.
- ③ 작품은 줄거리도 줄거리지만, 지문에 있는 상황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 ④ 화법과 작문은 이번에 쉽지만 다음에도 쉬우라는 보장이 없다. 어려운 내용을 많이 접하자.
- ⑤ 그리고 평소에 급할 때 내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대응력을 기르도록 하자.

시간 관리는 기본이지만, 내용을 읽지 못하면, 결국 도루묵입니다.

맞힐 수 있는 문제는 제대로 맞힙시다. 대충 맞지 마시다. 대충 읽지 마시다.

자, 이제 꼼꼼하게 하나 하나 체크해 볼까요?

01~10 화법 · 작문

01.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분석]

②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 상호 작용 하고 있다.

강연자는 첫 번째 문단 ‘여러분, 혹시 걷다가 유리문에 부딪친 적 있나요?, 세 번째 문단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없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죠?’라는 질문을 통해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의 반응을 듣고 확인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강연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강연자는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었고 반응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청중과 강연자가 상호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오답 분석]

① 강연에서 제시된 용어를 정의하여 /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강연에서는 ‘전방 인지 능력’, ‘자외선’과 같은 여러 용어를 사용하지만, 청중의 이해를 위해 이 용어들을 정의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청중의 배경지식이 /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강연에서는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없다’는 배경지식을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확인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강의의 내용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강연의 앞부분에서 강연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여 / 청중들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게 하고 있다.

강연의 앞부분에서는 청중들의 경험을 환기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연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는 부분은 강연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강연 내용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서 / 강연을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강연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내용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청중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5번 문제에 ④번 선지, 2015, 2014학년도*

*수능 화법에서도 이해 확인 질문을 물어보고 있어요.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2015)’ ‘진행자는 전문가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2014)’ 이런 식으로 말이죠.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02. 다음은 학생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② 강연자가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 의문을 제기하며 들었다.

학생은 강연자가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비둘기도 야생 조류에 해당할까?’는 의문의 제기가 맞지만, 강연자의 설득 근거가 아닌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의문 제기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풀려다 보면, ‘비둘기도 야생 조류에 해당할까’라는 부분의 ‘의문 제기’만 들여다보고 이 선지를 맞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 절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답 분석]

①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들었다.

‘머칠 전 우리 집 유리창에도 비둘기가 부딪쳐서 놀랐어.’는 강연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신의 과거 경험입니다. 물론, 그 아래에 ‘비둘기도 야생 조류에 해당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경험이 강연의 내용에 완전히 들어맞는 사례인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역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험이 강연의 내용에 완전히 들어맞는 사례가 아니더라도(즉, 비둘기가 야생 조류가 아니더라도), 해당 경험이 강연의 내용과 ‘관련되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③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들었다.

‘자외선 반사 테이프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는 강연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④ 강연자가 제시한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며 들었다.

‘자외선 반사 테이프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우리 집에도 부착하면 새가 부딪치지 않겠지.’를 통해, 학

생은 강연자가 제시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⑤ 강연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하며 들었다.

‘야생 조류가 부딪치지 않게 유리창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는 강연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강연의 마지막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라고 강연자가 제안하였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는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03. <보기>는 강연에서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강연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문제와 원인, 해결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힘, 시야의 범위가 좁아 전방 인지 능력의 한계(유리창을 장애물로 인식하기 어려움), 자외선 반사 테이프(유리창을 장애물로 인식하기 쉬움)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선지를 하나 하나 따져나가면서도 핵심적인 해결 포인트를 파고드는 것도 수능스럽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정답 분석]

⑤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강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에 <자료 1>, ㉡에 <자료 2>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자외선을 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자외선 반사 테이프’가 야생 조류에게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시킬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오답 분석]

① <자료 1>은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자료 1>을 ㉠에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나, 이 자료는 ‘야생 조류의 충돌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활용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자료 1>은 사람과 야생 조류의 시야 범위가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자료 1>이 ‘사람과 야생 조류의 시야 범위가 다름을 설명하는’ 자료인 것은 맞으나, 이를 ㉡에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사람과 야생 조류의 색 인식 영역’에 대한 자료가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자료 1>은 자외선 반사 테이프의 부착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에서는 ‘자외선 반사 테이프 부착 후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이 크게 줄은’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1>과 <자료 2> 모두 이와 같은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서 <자료 1>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원인’을 잘 드러낸 자료는 <자료 2>가 아닌 <자료 1>입니다.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자외선을 인식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자료이지, 유리창 충돌 원인과는 무관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04.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⑤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언급한 것은 / ‘학생 1’이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평가한 것이군.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찾아보아야겠다고 언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생 1’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여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A]에서 ‘학생 1’이 아이 디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학생 1’이 제기한 비판(‘유화 그리기 수업’이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음)에 대한 대안을 ‘학생 3’이 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① ‘학생 2’가 △△거리, □□길을 언급한 것은 / 맞나거리가 사랑시 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학생 2’는 ‘맞나거리’가 사랑시만의 특색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 △△거리, □□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② ‘학생 3’이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고 한 것은 / ‘학생 2’의 발언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이군.

‘학생 3’이 소개한 반딧불이 축제는, ‘맞나거리’가 부적

절하다고 말한 ‘학생 2’의 발언에 대한 대안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 ③ ‘학생 2’가 사랑미술관을 소개하자고 한 것은 / 모둠 과제 안내장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제안한 것이 균.

모둠 과제 안내장에는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나 행사의 포함’이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학생 2’가 사랑미술관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 도시만의) 특색’을 보이기 위함이었고, 이를 통해 ‘학생 2’가 조건을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 ④ ‘학생 1’이 유화 그리기 수업에 대해 언급한 것은 / 독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균.

‘학생 1’은 ‘유화 그리기 수업’이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임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독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여기에 손이 가요 손이 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독자가 학생이라는 것이 없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었을 것인데요. ‘과제’를 보시면 독자가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상 청중 및 독자에 대한 탐구는 화법, 작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4A. 예상 독자와 글의 목적이 달라져 개요 (가)를 (나)로 바꾸었다. (나)를 수정하거나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학년도 대수능)

(가)

(나)

예상 독자	지역 주민	→	예상 독자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입안자
목적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여론 형성		목적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수립과 지원 요청
	I. 생활 체육 활동 참여 실태 1. 생활 체육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2. 주민들의 참여율 저조 II. 생활 체육 활동의 중요성 1. 개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 2. 지역 사회의 연대감 및 공동체 의식 함양 III. 생활 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당부			I. 생활 체육의 필요성 II. 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 1. 생활 체육 프로그램의 부족 2. 생활 체육 시설 미비 3.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미흡 III. 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 1. 홍보 강화를 통한 주민들의 관심 유도 2.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 3. 생활 체육 시설 확충 4.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대 IV. 국민의 풍요로운 생활 도모

- ① (가) ‘I-1’은 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나) ‘II’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켜야겠어.
- ② (가) ‘I-2’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III’에 ‘생활 체육 참여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야겠어.
- ③ (가) ‘II’의 하위 항목들을 (나) ‘I’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켜 생활 체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야겠어.
- ④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타 지역의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나) ‘III-2’의 사례로 제시해야겠어.
- ⑤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나) ‘IV’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촉구’로 바꿔야겠어.

4A 답 : ②

0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분석]

① ㉠은 우려되는 문제 상황을 들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은 '평범한 글이 될 것 같다'는 문제 상황 하에,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오답 분석]

② ㉡은 상대가 제시한 의견의 문제를 지적하며 / 상대에게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은 '상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문제 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은 ㉡과 달리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 자신의 의견에 대한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과 ㉡ 모두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였으나, ㉠은 '의견에 대한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은 ㉠과 달리 상대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 상대의 질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과 달리 상대에게 되묻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을 통해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 상대의 조언을 요청하고 있다.

㉠과 ㉡ 모두 발화자 '개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과 ㉡ 모두 상대방의 조언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의 경우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은 이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06. [B]를 바탕으로 [C]를 작성했다고 할 때, [C]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분석]

⑤ 제당에서 바람맞이 언덕으로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정자를 거쳐서 가는 경로를 소개한다.

[B]에서는 '바람맞이 언덕'을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제당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도 안내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제당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정자를 지나 5분 정도 더 올라가면 '바람맞이 언덕'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가끔 이 문제 틀리신 분들 중에, 정자를 못 보았다고 한탄하던데, 설마 '정자'가 없지는 않겠죠? 4번 문제 ⑤번 선지에서 힘들어했던 학생들은 여기서도 힘들어 할 수 있으니, 꼭 화작은 시간 절약하는 곳이 아니더라는 교훈을 먹고 가세요.)

[오답 분석]

① 산할머니 제당과 문화제를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당과 문화제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안내한다.

[C]에 '다양한 행사'가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산할머니 전설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산할머니의 일화가 담긴 은행나무도 함께 소개한다.

[B]에 은행나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C]에 언급된 은행나무는 '산할머니'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사랑시 명칭의 유래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사랑시의 명칭이 변화되어 온 과정도 설명한다.

[C]에 '사랑시의 명칭이 변화하여 온 과정'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사랑시의 전통을 보여 주는 바람맞이 언덕을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마다 문화제가 열리는 이유를 설명한다.

[B]의 논의를 보면, '바람맞이 언덕'은 사진 찍기에 좋기 때문에 소개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맞이 언덕'이 사랑시의 전통을 보여 준다 보기도 어려우며, 문화제가 열리는 이유 역시 '바람맞이 언덕'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지를 대충 보면 이 선지에 손이 가게 됩니다. 지문을 잘 읽고도 선지를 대충 보아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바람맞이 언덕도 있지. 해마다 문화제가 열리는 이유도 있지. 하지만 바람맞이 언덕과 매해 문화제과 열리는 것은 연관성이 부족하지요. 없는 원인을 연결한 것이랍니다.)

07.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분석]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이 모두 드러나야 하고,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 문구데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조의 표현 방식이 활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조를 왜 굳이 다다음 문장에 떨어뜨려 놓았을까요? 평가원은 이렇게 거리를 둠으로써 문제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화자 총론에서도 자주 언급하였던, 조건 ALL충족과 히든 조건! 꼭 기억하세요.)

[정답 분석]

④ 효의 정신이 담긴 산할머니 전설과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가 있는 청정한 사랑시로 오세요. 어두운 여름밤을 수놓는 밝은 반딧불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

‘산할머니 전설’을 제시하여 전통 분야 특색을, ‘반딧불 및 ‘청정한 사랑시’를 제시하여 자연 분야 특색을,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를 제시하여 예술 분야 특색을 드러냈습니다.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좋은 점이 드러나 있으며, ‘어두운 여름밤’과 ‘밝은 반딧불’을 활용하여 대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오답 분석]

① 효의 고장, 사랑시로 오시겠어요? 바람맞이 언덕에서 별빛처럼 피어나는 반딧불을 보면 텅 빈 가슴이 빛으로 가득 찰 거예요.

사랑시의 예술 분야 특색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산할머니 전설이 남아 있는 사랑시에는 효의 전통과 함께 맑고 깨끗한 자연 풍경이 있어요. 아름다운 예술이 가득한 사랑시로 오세요.

대조의 표현 방식이 활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사랑시의 맑고 깨끗한 자연을 담은 그림을 감상하면서 화가의 해설을 들어 보세요. 효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산할머니 전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줍니다. 대조의 표현 방식이 활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사랑스러운 반딧불이와 오순도순 함께 떠나는 사랑시 여행. 눈은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사랑시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오롯이 담긴 미술 작품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사랑시의 전통 분야 특색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7번과 관련된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7A. 다음은 문화재 답사기를 쓰기 위해 <보기>의 계획에 따라 작성한 초고이다.

- ‘내소사의 역사 소개 → 대웅보전의 꽃살문 묘사(전체에서 부분으로) → 꽃살문의 의의 서술 → 감상’의 순서로 전개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심 소재의 사진을 첨부
-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상’을 쓰되, 관용 표현과 의인법을 활용

답사 들के 날, 꽃살문으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로 향했다. 경내에 들어서니 유서 깊은 대웅보전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꽃살문에서 꽃문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각 꽃살문에는 연꽃, 모란, 국화 등이 새겨져 있었는데, 꽃잎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특히 왼쪽에서 셋째, 여섯째 문은 다른 문들과 꽃문양의 배치가 달라 눈길을 끌었다.

㉡아래쪽에는 꽃봉오리가, 위쪽에는 활짝 핀 꽃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면에서 보면 대웅보전에는 가운데 칸에 네 짝, 좌우 칸에 각각 두 짝의 문이 달려 있다. 모든 문의 문살은 밧살이 교차된 모양이며, 각 교차점 위에 꽃들이 얹혀 있는 듯했다. 꽃살문은 전체적으로 나무색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소박하고 단아해 보였다.

불가에서 꽃은 깨달음을 상징한다고 한다. 특히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새긴 꽃살문은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보여 주는 것 같았다. ㉢더구나 모란의 꽃말은 ‘부귀’라고 한다. 꽃살문은 문의 일반적인 기능을 넘어 장식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

7A. 글쓰기 계획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을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소사의 꽃살문은 고운 자태로 마음속에 품은 뜻을 내게 말해 주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문화재는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② 내소사 꽃살문의 꽃문양들은 모두 살아 있는 듯이 화려한 외모를 뽐내고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던데, 앞으로 우리나라 자연에 관심을 갖고 여행을 자주 해야겠다.
- ③ 내소사의 꽃살문에는 장식과 상징의 기능이 모두 있었다. 꽃살문처럼 조상들의 미의식과 지혜가 담겨 있는 ‘일석이조’의 문화 유산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 계승해야겠다.
- ④ 내소사의 꽃살문은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엄숙하게 꾸짖고 있었다. 문화재에 담긴 조상들의 여유와 넉넉함을 본받으며 살아야겠다.
- ⑤ 내소사의 꽃살문으로부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나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7A 답 : 1번(2번 쓴 사람들은 지문에서 실제로 꽃살 문이 화려한 외모를 뽐내는지 보시고, 무엇보다도 글이 문화재 답사기여야 한다는 주제 부합을 고려할 것!)

08. ㉠~㉣ 중 '글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 ㉠ 역사적 사실의 반영 정도에 따른 사극의 유형  
㉠은 글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유형'을 글에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을 나열하는 등의 표현 방법이 쓰였어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다큐멘터리'가 제시되지만, 글에서 '다큐멘터리'와 '사극'은 엄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 ㉡ 학생들 사이에 사극에 대한 논란이 있음  
첫 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② ㉢ 사극의 본질은 주제 의식에 있음  
두 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③ ㉣ 시청자들이 사극에 흥미를 갖는 원인  
세 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④ ㉤ 사극은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  
세 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09.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를 앞절과 뒷절로 나누어서, 앞절은 고쳐쓰기 전 문장과, 뒷절은 고쳐쓴 이후의 문장과 비교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분석]

㉡ 실제 역사와 사극으로 초점이 분산되어 논지가 흐려지므로 / 사극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는 입장이 부각되도록  
고쳐 쓰기 전 마지막 문단에서는 '실제 역사'와 '사극'을 둘 다 제시하여 논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인 '사극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는 입장을 고쳐 쓴 마지막 문단에 강조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오답 분석]

① 사극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제시하여 통일성이 약화되므로 / 허구적 창작물이 사극의 본질이라는 입장이 부각되도록  
고쳐 쓰기 전 마지막 문단에서는 사극의 순기능과 역기

능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실제 역사의 장점을 위주로 제시하여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 사극이 실제 역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 강조되도록

고쳐 쓰기 전 마지막 문단에서는 실제 역사의 장점을 위주로 글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쳐 쓴 마지막 문단에서 '사극이 실제 역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실제 역사와 사극의 긍정적 기능을 함께 제시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 사극의 본질은 실제 역사를 온전히 수용하는 데 있다는 입장이 강조되도록

고쳐 쓰기 전 마지막 문단에서 '실제 역사와 사극의 긍정적 기능을 함께 제시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맞으나, 고쳐 쓴 마지막 문단에서 '사극의 본질이 실제 역사를 수용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실제 역사 반영이 사극에서 중요함을 제시하여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 허구적 창작물로서의 사극이 갖는 효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되도록

고쳐 쓰기 전 마지막 문단에서 '실제 역사 반영이 사극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10. <보기>의 관점에서 [A]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마치 독서 스타일과 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제,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3번 문제도 이러한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옛 기출 독서 <보기> 문제를 꼼꼼히 섭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수강생들은 독서 총론 8장 앞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답 분석]

㉢ 사극에서 상상력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들 간의 유기성을 부여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은 유지하고', 이를 연결해 나갈 때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오답 분석]

① 사극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를 제외하고 사실로서의 역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극이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② 사극에서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를 사실로서의 역사 보다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

<보기>에서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을 가치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④ 사극에서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요인은 허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제 의식이 아니라 사실로서의 역사이다. <보기>에서는 시청자의 공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⑤ 사극의 본질에 부합하려면 허구적 내용의 재미보다는 역사적 사건과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사극을 제작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은 <보기>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봅시다.>

거센 바람이 불고 화제가 잇따르자 정(鄭)나라의 재상 자산(子産)에게 측근 인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요청했지만, 자산은 “천도(天道)는 멀고, 인도(人道)는 가깝다.”라며 거절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자연 변화 또한 인간의 ㉠화복(禍福)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간이 자연 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했고, 정나라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가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쟁탈 대상이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춘추 중기에는 귀족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져 자산이 ㉡집정(執政)하기 직전까지도 정변이 이어졌다.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부국강병을 통해 강대한 제후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나라와 자산에게 부여된 과제였다. 그래서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중됐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하였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개간(開墾)을 통해 경작지를 늘려 생산을 증대하였고, 국가는 경작지를 계량하고 등록함으로써 민부(民富)를 국부(國富)로 연결시켰다. 아울러 그는 중간 계급도 정치 득실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화하여 정(鼎)\*에 새김으로써 모든 백성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처신하게 하는 법치의 체계를 세웠다. 성문법 도입은 귀족의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으므로 당시 귀족들은 이 개혁 조치에 반발 하였다.

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자산의 개혁 조치에 따라 정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그리고 법을 알려면 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문법 도입은 백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의 개혁 조치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백성의 ㉣위상(位相)을 높였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힘에만 의존하여 다스리는 역치(力治)의 가능성이 ㉤농후(濃厚)하였고, 결국 국가의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취로 이어지는 폐단을 낳기도 했다.

\* 정 : 발이 셋이고 귀가 둘 달린 술.

10A. <보기>의 입장에서 위 글의 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1학년도 수능)

<보 기>

노자(老子)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자연스럽고 무의지적이지만,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인간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보아 통치자의 무위(無爲)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 등은 모두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허위라 파악하고, 그것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 ①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결국 현실 사회를 허위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 ② 자연이 인간의 화복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자연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 ③ 현실주의적 개혁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안정과 혜택을 줄 것이다.
- ④ 사회 제도에 의거하는 정치 개혁은 사회 발전을 극대화할 것이다.
- ⑤ 사회 규범의 법제화는 자발적인 도덕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10A 답 : 1번 (2번 쓰신 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 볼 것!)

11~15 문법

[11-12]

현대 국어는 형태가 같으나 품사가 다른 ‘-(으)ㄴ’,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 ‘현대 국어에서’라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중세 국어 혹은 근대 국어와 비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야 해요. 중세 국어는 형태도 다르고 품사도 달랐다고 나오지요. 접사 -음/-음, 어미 음/음이 그러한 예입니다. 가령, ‘술음’은 접사 ‘음’이 있는 것이고, 현대어로 ‘사 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지요. 나아가 중세 국어에서 의 접사 ‘-음/-음’과 ‘음/음’은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형태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실제로 접사와 어미의 모음들이 모두 소실되어 ‘ㄴ’만 남았다는 것은 이미 문법 총론 18장에서 충분히 설명한 바가 있고, 그것의 구분법도 5장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합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 ④ ‘노퍽’ 와 ‘노피’의 형태를 보니, ‘노퍽’는 파생 부사이고 ‘노피’는 파생 명사이겠군.  
본문의 4문단에 따르면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이’(명사 파생 접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는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이/의’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에 각각 대응합니다. 즉, 중세 국어의 ‘-이/의’는 명사 파생 접미사이고, ‘-이’는 부사 파생 접미사인 것입니다. ‘노퍽 = 높- + -이’로 분석되는데 ‘-이’는 명사 파생 접미사이므로 ‘노퍽’의 품사는 명사이다. 또한 ‘노피 = 높- + -이’로 분석되는데 ‘-이’는 부사 파생 접미사이므로 ‘노피’의 품사는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노퍽’는 파생 부사, ‘노피’는 파생 명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④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오답 분석]

- ① ‘도훈 여름 여루미(좋은 열매 열림이)’에서 ‘여름’과 ‘여름’의 형태를 보니, 이 둘의 품사가 다르겠군.  
‘도훈 여름 여루미(좋은 열매 열림이)’에서 ‘여름’은 ‘열- + -음(명사 파생 접미사)’으로 분석되고, ‘여름’은 ‘열- + -음(명사형 어미)’로 분석된다. 명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여름’의 품사는 명사이고,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여름’의 품사는 동사(동사의 명사형)이므로 둘의 품사는 서로 다릅니다.

- ② ‘거름’과 ‘거름’의 형태를 보니, ‘거름’은 파생 명사이고 ‘거름’은 동사의 명사형이겠군.  
‘흔 거름 나소 거름(한 걸음 나아가도록 걸음)’에서 ‘거름’은 ‘걸- + -음(명사 파생 접미사)’으로 분석되므로 파생 명사이고 ‘거름’은 ‘걸- + -음(명사형 전성 어미)’로 분석되므로 품사는 동사(동사의 명사형)입니다.
- ③ ‘거름’과 ‘노퍽’의 모음조화 양상을 보니, 중세 국어 ‘높-’에는 ‘-음’이 아니고 ‘-음’이 결합하겠군.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음, -이/의’와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음’은 모음조화에 따라 결합하였다.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어근이나 용언 어간에는 ‘-(으)ㄴ, -이, -음’이 결합하였고,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어근에는 ‘-음, -의, -음’이 결합하였다. ‘거름’은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어근(걸-: ‘ㄴ’는 음성모음)이므로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것이고, ‘노퍽’는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어근(높-: ‘ㅇ’는 양성모음)이므로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높-’의 ‘ㅇ’는 양성 모음이므로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합니다.
- ⑤ 중세 국어의 형용사 ‘곧다’, ‘굳다’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군.  
부사 파생 접미사는 ‘-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음조화에 상관없이 ‘-이’가 결합합니다.

12.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에 해당하는 예로만 묶인 것은?

[정답 분석]

- ④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보람을 찾는 이도 있다.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에도 그 일은 맡기고 싶지 않다.  
‘도움’은 명사절 [어려운 이웃을 도움]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열심히) 도움’과 같이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사(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믿음’은 명사절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온전히’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동사(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므로 ‘도움’과 ‘믿음’은 모두 ㉠의 예로 적절합니다.

[오답 분석]

- ① 많이 앞이 항상 미덕인 것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떨렸다.  
 ‘함’은 명사절 [많이 앓]의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의 ‘많이’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나, ‘슬픔’은 관형어 ‘격한’의 수식을 받고 있고, 서술어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떨치 볍음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오빠는 몹시 기쁨에도 내색을 안 했다.**  
 ‘볶음’은 관형어 ‘떨치’의 수식을 받고 있고, 서술어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으나, ‘기쁨’은 명사절 [오빠는 몹시 기쁨]의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 ‘몹시’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합니다.

③ **요즘은 상품을 큰 묶음으로 파는 가게가 많다.**  
**무용수들이 군무를 춤과 동시에 조명이 켜졌다.**  
 ‘묶음’은 관형어 ‘큰’의 수식을 받고 있고, 서술어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으나, ‘춤’은 명사절 [무용수들이 군무를 춤]의 서술어 역할을 하며 ‘무용수들이 군무를 (멋있게, 열심히) 춤’과 같이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합니다.

⑤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수술 뒤 친구가 밝게 웃음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였다.**  
 ‘울음’은 서술어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으나, ‘웃음’은 명사절 [친구가 밝게 웃음]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부사어 ‘밝게’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합니다.

13. <보기>의 1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① ㉠ : ㉡  
 ㉠의 ‘도매가격’은 한자어 ‘도매(都賣)’와 한자어 ‘가격(價格)’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가 아닌 ㉢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합성어가 변별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가령 해님(햇님X), 개살구(갯살구X)같이 파생어와 비교를 했어야 합니다.)*

[오답 분석]

② ㉢ : ㉣  
 ‘전세방’은 ‘전세(傳賃)’와 한자어 ‘방(房)’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즉, ㉣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③ ㉤ : ㉥

‘버섯국’은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인 ‘버섯’이 모음이 아닌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즉, ㉤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버섯국, 조갯국의 단어 형성이 서로 다름을 파악하고 들어갔어야지요. ‘버섯+국’은 아니지요? 가령, 잇몸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몸’을 떠올렸어야 합니다. 기출에서 이미 나온 사례입니다.)*

④ ㉦ : ㉧  
 ‘인사말’은 [인사말]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즉, ㉧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발음 칸은 보라고 준 겁니다. 꼭 발음을 서로 비교해 보셔야지, ‘[인사말]로 발음되는데?’라고 판단해서서 4번 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⑤ ㉨ : ㉩  
 ‘나무껍질’은 [나무껍질]로 발음되는데 ‘껍질’의 발음 자체가 된소리인 것이지 된소리로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즉, ㉩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14.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비표준발음이 나올 수 있다고 하였고 실제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비표준발음은 모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문법 총론 12강과 문법 프리미엄 강좌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항 분석]

- ㉠ 비표준 발음 [글른]은 ‘글는 > 글는(자음군 단순화) > 글른(유음화)’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 것이고, 표준 발음 [궁는]은 ‘글는 > [극는](자음군 단순화) > [궁는](비음화)’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 것입니다.
- ㉡ 비표준 발음 [짬네]는 ‘짬네 > [짬네](자음군 단순화) > [짬네](비음화)’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 것이고, 표준 발음 [짤레]는 ‘짬네 > [짤네](자음군 단순화) > [짤레](유음화)’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 것입니다.
- ㉢ 비표준 발음 [끈기고]는 ‘끊기고 > [끈기고](자음군 단순화)’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 것이고, 표준 발음 [끈키고]는 ‘끊기고 > [끈키고](거센소리되기)’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 것입니다.

㉔ 비표준 발음 [똥지]는 ‘똥지 > [똥지](자음군 단순화) > [똥찌](된소리되기)’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 것이고, 표준 발음 [똥치]는 ‘똥지 > [똥치](거센소리되기)’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 것입니다.

[정답 분석]

㉑      ㉒      ㉓

① 유음화 비음화 거센소리되기

㉑의 비표준 발음과 ㉒의 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유음화(㉑)’가 나타나고, ㉑의 표준 발음과 ㉒의 비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비음화(㉒)’가 나타납니다. ㉓과 ㉔의 표준 발음은 ‘거센소리되기(㉓)’만 일어난 발음입니다.

15. <보기>의 ㉑~㉔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분석]

⑤ ㉔ :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는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㉔의 예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내가 서울대를 가더라.’, ‘어제 밤에 내가 잠꼬대를 하더라.’ 등이 ㉔의 의미로 쓰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 약을 마셨다 + 나는 그 약이 생각보다 안 쓰더라. 정도로 파악하시면 꿈이나 무의식에 대한 진술이 아닌, ‘감각’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㉑ :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는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인 ‘다음 주 약속’이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더-’가 쓰인 예(㉑)입니다.

② ㉒ :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감정(놀랍다)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평서문으로 1인칭 주어인 ‘나’와 함께 ‘-더-’가 쓰이고 있으므로 ㉒의 예로 적절합니다.

③ ㉓ :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밋더냐?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내가 안 밋더냐?’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감정(밋다)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의문문으로 2인칭 주어인 ‘너’와 함께 ‘-더-’가 쓰이고 있으므로 ㉓의 예로 적절합니다.

④ ㉔ : 기어이 우수한 그날, 우리 어찌 아니 기쁘더냐?

‘기어이 우수한 그날, 우리 어찌 아니 기쁘더냐?’는 수

사 의문문으로 1인칭 주어인 ‘우리’와 함께 ‘-더-’가 쓰이고 있으므로 ㉔의 예로 적절하다.

(‘우리가 1인칭 주어인줄 파악하지 못했거나, ‘수사 의문문의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문법 총론 2장과 8장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6~26 독서

[16~21] 최한기의 인체관

(다수의 철학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눈으로만 글을 보기보다는 각 입장의 공통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서 보는 편이 좋습니다.)

16.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분석]

- ②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7세기 초부터 조선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 중 서양 의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실학자 이익과 최한기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조선에서 서양 의학을 수용하며 발생한 인체관의 변화에 대해 서술할 뿐, 인체관의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지 않았고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③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시대의 따른 인체관의 변화를 제시할 뿐 각 주장의 문제점을 열거하지 않았고 이를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 ④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 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지문에서 제시한 두 개의 인체관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지도 않았습니다.
- ⑤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서양의 의학이 조선의 지식인들이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 ④ 아담 샬과 흠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흠슨의 책들은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 샬이 쓴 「주체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

체관은 담기지 않았고,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최한기는 흠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최한기는 '몸기계'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흠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졌습니다.
- ②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아담 샬은 뇌가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고 설명했지만, 이익은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습니다.
- ③ 이익과 흠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익은 아담 샬의 설명 중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 긍정하였고 흠슨은 뇌가 운동과 지각을 모두 주관한다는 뇌주지각설을 주장했습니다.
- ⑤ 「주체군징」과 「전체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담 샬의 「주체군징」은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이 실려 있었고, 흠슨의 「전체신론」은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했습니다.

18.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 ③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식에 비해 미미하였습니다. 다만 서양 의학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이유는 당시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기 때문이지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실학자 이익과 최한기도 한계를 지적하는 대신 서양 의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학자나 의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고 집행하는 조정(朝廷)에서 서학에 대한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②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 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④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최한기 이전의 유학자들은 인체에 대한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는데,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⑤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통해 서양의 천문·지리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의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지만,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아 영향력이 미미하였습니다.

19.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답 분석]

③ ㄴ, ㄷ

ㄴ. 귀에 쏘린 신기가 눈에 쏘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최한기의 심주지각설에 따르면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립니다.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하는데,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ㄷ.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또한 감각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답 분석]

ㄱ. 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최한기는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을 주장했습니다. 최한기는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는데,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장이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주장은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ㄷ.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최한기에 따르면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몸에 퍼지는 신기,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는 주장은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20.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분석]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지만.

데카르트가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가지고,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최한기는 신기의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합니다.

[오답 분석]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음.

데카르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라고 주장하여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와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지만.

데카르트는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해 사유라는 특

정을 갖는 '정신'이 갖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한기의 '신기'는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습니다.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군.

데카르트는 정신이 갖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고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여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독립적에 집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한기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최한기는 정신과 물질이 독립적이지 않군요.)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최한기의 시도는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합니다.(이 문장을 제대로 읽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는 최한기의 주장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한 소급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웠나요?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 즉, 우리는 지시어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리트 문제를 하나 던져봅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 중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지닌 제일 학문이라고 자처해 왔다. 이러한 자신감의 근거에는 철학적 앎이 최고의 확실성을 지니는 것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다. 그러나 철학의 자기도취는 종종 철학 자체 안에서 도전에 직면하거나, 특히 회의주의가 그 도전의 중심에 있다. 궁극적 진리의 인식이 소명인 철학에서 의심을 생명으로 하는 회의주의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철학사 초기에 나타난 고르기아스의 세 명제는 회의주의의 고전적 전형이다. 그에 따르면 첫째,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둘째, 어떤 것이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으며, 셋째, 어떤 것을 알더라도 우리는 그 앎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반지성주의 성향의 사람에게 이 극단적 견해는 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치명적 모순이 있다. 즉 고르기아스는 첫째, 극단적 회의의 주제인 자신이 존재함을, 둘째,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자신이 알고 있음을, 셋째, 아무것도 전달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앎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는 즉시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현대의 경우 극단적 회의주의는 알베르트의 '가류주의(可謬主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특히 모든 철학적 명제의 생명을 좌우하는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최초의 자명한 명제에서 다른 명제들을 도출시켜 나가는 철학적 지식 체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가 무기로 삼는 것은 뮌히하우젠 트릴레마(Münchhausen-Trilemma)이다. 이 트릴레마는 말을 타고 가다가 수렁에 빠진 뮌히하우젠 남작이 자신의 머리채를 위로 잡아당겨 빠져나오려 했다는 우화를 빗댄 것이다. 알베르트에 따르면 모든 하위 명제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최초의 확실한 명제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다음 세 오류 중 하나를 반드시 범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실패한다.

- 무한 소급: 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다른 상위 명제를 설정하지만, 이 제2의 명제는 제3의 명제를, 제3의 명제는 제4의 명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식으로 상위 명제에 대한 요구가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적 정당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순환 논증: 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2의 명제를 끌어들이지만, 이 제2의 명제를 다시 제1의 명제를 통해 정당화하고자 하므로 이 역시 최종적 정당화로 볼 수 없다.
- 절차 단절: 계속되는 정당화 요구의 총족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화 과정의 한 특정 단계에서 모든 논의를 중지시키고 하나의 명제를 절대 도전할 수 없는 도그마로 설정한다. 이는 합리적 논변의 지속을 단절하는 것이므로 최종적 정당화로 볼 수 없다.

이 트릴레마의 위력은 실로 막강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철학적 정당화는 일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명제의 불확실성을 절대화하는 알베르트 역시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그는 이 트릴레마의 '절대적 정당성'에 '최종적으로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확실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명시적 주장'과 '함축적 행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화, 즉 '수행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수행적 모순의 발견은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최종적 정당화가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증명 방식이 바로 '귀류법적 증명'이다. 이 증명 방식은 명제  $p$ 의 모순 명제인  $\sim p$ 가 언명되는 순간  $\sim p$ 는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음을 밝힘으로써  $p$ 의 타당성을 우회적으로 증명한다. 즉 '확실한 인식은 없다'라는 알베르트의 명시적 주장은 '확실한 인식은 없다는 인식은 확실하다'라는 주장을 함축하므로, 그가 부정하려한 '확실한 인식은 있다'라는 명제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증명 방식을 통해 우리는 가류주의적 회의에 맞서 확실한 명제들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회의주의는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오히려 자기 파괴로 귀결되므로 그 자체가 철학의 궁극적 사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칫 독단론에 빠지기 쉬운 철학에 대해 회의주의는 생산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회의주의의 강력한 도전은 철학으로 하여금 거기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한 면역력을 갖춘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철학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20A. <보기>의 ㄱ, ㄴ을 [A]의 개념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보 기>

- ㄱ. 우리의 마음에는 '완전한 존재'라는 확실한 개념이 있다. 그런데 '완전한 존재'가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완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완전한 존재'인 신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의 확실성을 보장해 준다.
- ㄴ. 식물이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식물도 생명체이고, 모든 생명체는 '삶에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에 의지'를 가지는 존재는 소중하며, 이러한 존재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자연의 이법(理法)이기 때문이다.

- |         |       |
|---------|-------|
| 그       | ㄴ     |
| ① 무한 소급 | 순환 논증 |
| ② 무한 소급 | 절차 단절 |
| ③ 순환 논증 | 무한 소급 |
| ④ 순환 논증 | 절차 단절 |
| ⑤ 절차 단절 | 무한 소급 |

20A. 정답 : ④

[정답&오답 풀이]

- ㄱ. 지문에서는 “완전한 존재”의 신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는 ‘완전한 존재’라는 확실한 개념이 있다. 그런데 ‘완전한 존재’가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끌어다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근거가 되는 이 명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주장하는 명제인 ‘신의 실존’을 다시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이 논증은 주장 명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 명제를 끌어들이지만, 이 근거 명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시 주장 명제를 끌어들이고 있다. 따라서 ㄱ은 ‘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2의 명제를 끌어들이지만 이 제2의 명제를 다시 제 1의 명제를 통해 정당화하고자’하는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 ㄴ. 지문에서 “식물이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식물도 생명체이며, 생명체는 ‘삶에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뒷받침된다. 또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삶에는 의지’가 있는 존재를 왜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는 그것이 ‘절대적인 자연의 이법’이기 때문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절대적인 자연의 이법’은 어떠한 근거로도 반박 가능한 명제가 아니므로, 이에 따라 ㄴ의 모든 논의는 중지된다. 절차 단절은 이처럼 ‘계속되는 정당화 요구의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화 과정의 한 특정 단계에서 모든 논의를 중지시키고 하나의 명제를 절대 도전할 수 없는 도그마로 설정’하는 것을 이른다. 따라서 ㄴ은 절차단절의 한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 ㉡ : 가리지

‘맹신하다’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잘못이나 좋은 것과 나쁜 것 따위를 따져서 분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리다’와는 반대의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 : 들어오기

‘유입되다’는 ‘문화, 지식, 사상 따위가 들어오게 되다.’라는 의미이므로 ‘들어오다’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 ㉥ : 드러내었다

‘제시하다’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라는 의미의 ‘드러나다’의 사동사인 ‘드러내다’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 ㉧ : 찌뜨리기

‘전파하다’는 ‘전하여 널리 퍼뜨리다.’라는 의미이므로 ‘널리 퍼지게 하다.’라는 의미의 ‘찌뜨리다’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 ㉩ : 실린

‘수록되다’는 ‘책이나 잡지에 실리다.’라는 의미이므로 ‘글, 그림, 사진 따위를 책이나 신문 따위의 출판물에 내다.’는 의미를 가진 ‘실다’의 피동사 ‘실리다’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22~26] 법규

[지문 주요내용 정리]

1문단: 사례 제시

2문단: 계약 자유의 원칙과 임의 법규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음

임의 법규: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으로, 법률의 내용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경우 계약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3문단: 단속 법규

단속 법규의 의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법조문

특징: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법적 불이익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여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

부를 할 의무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인정된다.

4문단~5문단: 강행 법규

강행 법규의 의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도 부정되는 법조문

특징: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됨

예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경우

6문단: 비례 원칙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원칙

[문항해설]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 3문단을 보면, ‘단속 법규’에 위배되는 계약은 그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법적 불이익’을 통해 국민이 그러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속 법규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지문 6문단의 내용에 따를 때, ‘비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지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답 분석]

㉡ 임의 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지문 2문단을 보면,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임의 법규는 그와 어긋난 계약 내용이 있다면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 한다.

지문 2문단을 보면,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3문단을 보면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내용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3문단의 제시한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단속 법규는 ‘법적 불이익’을 통해 그 법조문의 내용과 어긋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법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규에 어긋나는 계약의 내용이 있다면 계약의 내용을 우선하는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단속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 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3문단을 보면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내용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문단을 보면,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단속 법규’의 경우에는 계약의 자유를 ‘법적 불이익’을 통해서만 제한하지만, ‘강행 법규’의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도 제한합니다. 따라서 ‘법적 불이익’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입법 목적을 ‘계약 효력 부정’이라는 방법까지 사용하여 달성하려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비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⑤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지문 5문단을 보면, ‘급부의 내용이 ...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 이미 넘겨줄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4문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답 분석]**

② ㄱ, ㄷ

ㄱ. 지문 2문단을 보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가 가리키는 것은 2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임의 법규’입니다. 즉,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은 임의 법규로서 계약에 의해 그것과 내용을 다르게 정하여도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법규를 충실히 따른 것이어서 당연히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ㄷ.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임의 법규’이고, ‘임의 법규’는 그것과 어긋나는 계약 내용이 있으면 계약 내용을 따른다는 지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 수선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세입자가 수선을 할 의무를 질 것입니다. 또한, ‘임의 법규’의 경우에는 그것과 어긋나는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 중 아무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3문단 초입에 ‘그러나’를 보시면 이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의 법규는 법적 불이익도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없는 것이지요.>*

**[오답 분석]**

ㄴ. 지문 1문단에 따르면, 법조문에는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당연히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질 것이고, 이는 법규를 충실히 따른 것이 되므로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ㄷ. 임의 법규의 내용과 어긋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24.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문의 정리]**

- 단속 법규(3문단)  
법규와 어긋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음  
계약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므로 급부를 할 의무는 인정됨
- 강행 법규(4문단~5문단)  
법규와 어긋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음  
계약의 효력 자체도 부정되므로 급부 의무 역시 부정됨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이 넘어갔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가 인정됨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반사회적이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정답 분석]**

- ①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제시문의 정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 계약 당사자들의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 [제시문의 정리]에 따르면,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강행 법규만의 특징입니다.
- ③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위 [제시문의 정리]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강행 법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④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위 [제시문의 정리]에 따르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강행 법규의 특징입니다.
- 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  
단속 법규와 강행 법규 모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 법규는 그것이 법규에 위반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강행 법규는 법적 불이익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도 무효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25.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정답 분석]**

- ③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군.

<보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관한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요약을 보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지문에서 말하는 ‘법적 불이익’에 해당한다. 즉 당해 농지법 규정은 ‘단속 법규’ 또는 ‘강행 법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이 사건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대법원은 법적 불이익 부과만으로는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에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계약까지 무효로 보았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私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지문 2문단에서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농지 임대차 계약’은 개인의 재산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법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와 B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연히 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②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벌금’ 즉 ‘법적 불이익’의 부과와 ‘계약의 효력 부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④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 A의 급부는 농지 사용료의 납부이고 B의 급부는 농지의 임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발생한 부당이득은 A가 B에게 제공한 농지 사용료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부당이득의 반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지는 지문이나 보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 A의 급부는 농지 사용료의 납부이고 B의 급부는 농지의 임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발생한 부당이득은 A가 B에게 제공한 농지 사용료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부당이득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B는 A에게 그것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 26.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정답 분석]

#### ㉠ 나는 조장으로서 큰 부담을 지고 있다.

(1) 실전적 풀이 -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

㉠ ㉠의 '지다'는 문맥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말다'나 '갓다'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①의 경우에는 '생기다'와 그 의미가 유사하며, ②의 경우에는 '입다', ③의 경우에는 '~한 관계가 되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④의 경우에는 '메다'와 의미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 외의 다른 선택지들은 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 경우에는 '말다'나 '갓다'로 바꾸어 써도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훼손되지 않으므로 ㉠이 정답으로 적절합니다.

(2) 사전적 풀이 - 의미를 몰랐다면 외우고 지나가자

㉠ ㉠의 '지다'는 "책임이나 의무를 맡다."라는 의미입니다. ①의 '지다'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이며, ②의 '지다'는 '신세나 은혜를 입다.'라는 의미입니다. ③의 '지다'는 '어떤 좋지 아니한 관계가 되다.'라는 의미이고, ④의 '지다'는 '물건을 짊어서 등에 엮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의 '지다'는 "책임이나 의무를 맡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정답은 ㉠입니다.

### [보충설명: 비례 원칙]

비례 원칙이란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예컨대 이 지문에서는 '계약의 자유'라는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이다.) 그 한계로 작용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그 안에 ① 적합성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각 원칙은 순서대로 적용된다. 즉, '적합성의 원칙'을 위배한 국가의 행위는 '필요성의 원칙'이나 '상당성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된다. 또한,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였지만 '필요성의 원칙'을 위배한 국가의 행위도 '상당성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된다.

먼저 '적합성의 원칙'이란,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 지문의 경우를 보면, '국가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계약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필요성의 원칙'이란, 동일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국민에게 가장 적은 침해는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문을 보면, '단속 법규'에 비해 '강행 법규'가 국민에게 더 큰 침해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속 법규'의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법적 불이익만을 주고 계약은 유효하지만, '강행 법규'의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뿐더러 계약 역시도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속 법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행 법규'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당성의 원칙'이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보다 커야 함을 의미한다. 즉,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의 크기를 비교하여, 공익이 더 클 경우에만 국가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7~34 문학

[27~31] 현대시 & 수필 (갈래 복합)

(가) 박봉우, 「휴전선」

(나) 배한봉, 「우포늪 왁새」

(다) 김기림, 「주을온천행」

<6평은 앞으로의 수능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시가 파트, 갈래 복합 파트에서 한 지문은 연계, 나머지 지문은 비연계로 만드는 작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분석]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의 작품은 전쟁의 결과물로 나타난 휴전선으로 갈라진 국토라는 공간을 통해 우리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는 우포늪이라는 공간에서 왁새의 소리를 소리꾼의 목소리에 빚대어 우포늪이 가진 생명력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는 작가가 직접 방문한 오심암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가) 작품은 전쟁으로 인한 휴전상태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 상황을 이야기하며 희망적인 미래 역시 표출하지 않은 상태로 현실에 대해 개탄하며 수미상관적 구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 작품에서 뚜렷한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지 않으며 왁새 울음소리에서 소리꾼의 절창을 연상하는 것이 희망적 미래를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작품 역시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지 않고 자연에서 깨달음으로 다시 또 오겠다는 다짐이 있기에 희망적인 미래를 미리 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가)에서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의 자세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참여 의식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에서 역사적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우포늪이 주는 생명의 가치를 왁새를 통해 떠오른 소리꾼의 모습으로 연상하고

있습니다. (다)에서는 역사적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자연에 비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를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에 나타난 자연은 분단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우포늪의 생명력을 전생애 소리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왁새’를 통해 보여주는 데에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선지처럼 자연과 인간을 갈라 두어 자연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미치지 않았는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지요. 이런 생각을 고려해 볼 때,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란 어려울 듯합니다. (다)에서 오심암을 보며 작가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있느냐하면,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는 태도, 그리고 ‘좋은 음식’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예찬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은 우선, (다)는 확실합니다. (다)는 수필이기 때문에 경험을 필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와 (나)는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지 유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선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보다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에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은 (가)~(다) 모두 없습니다.

2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의 ‘어두움 속’은 불안하고 긴장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시간을 드러내기 위한 시어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시상을 전개한다는 의미는 사건의 전후 판단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는 수미상관과 상징적 표현들로 시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확실한 표지가 있습니다.

다. ‘덩그러니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겨울을 지나 봄이 오니’ 등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나)의 화자는 우포늪의 삭새를 통해 소리꾼을 연상한 것이므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 것은 아닙니다. 시선의 이동이 되려면 적어도 한 장면 내에서 시선의 이동 상황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시는 어떤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과 상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니, 쉽게 시선의 이동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선의 이동은 기출에서 다음과 같이 나왔었습니다.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 끊어졌네  
외로운 배 안의 도롱이 입은 늙은이  
흘로 뉘시질하네 찬 강엔 눈만 내리고  
- 유종원, 강설(江雪) ->*

① ‘산 → 길 → 배 → 뉘시질’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O)

**[오답 분석]**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각 연의 종결을 ‘~ㄴ가’로 끝내는 설의적 표현으로 분단현실에 비극적 현실을 강조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나)에서 폭포수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통해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생동감을 느끼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할 때, ‘청각의 시각화’라고 언급하였으면 어 없네? 라고 빠른 판단을 하기 보다는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 문항 자체는 먼저 풀면 안 됩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은 그 세트 문항지 중 맨 마지막에 푸시길 바랍니다.>*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 1연과 5연의 시구를 반복하며 분단된 민족 상황을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소리꾼의 모습을 통해 우포늪의 생명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가)에 ‘화산, 꽃, 바람’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고 (나)에서는 삭새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자연물에 투영하였다’하면 감정 이입을 생각하길 마련인데, 해당 선지의 출제 의도는 화자의 생각이 ‘자연물’이란 소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가 정도로 접근하는 것이 수월할 듯합니다.

**29.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분석]**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늑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분단된 현실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의 ‘아늑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먼저 긴 자신의 모습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모습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중단된 휴전 상황을 통해 불안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의 ‘검은 절경’은 짙은 단풍빛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으로 볼 수 없고 화자의 암울한 심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가)의 ‘정맥’이 끊어졌다는 것은 분단을 드러낸 것으로 유혈이 지나간 비극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삶의 의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의 ‘찬기’는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것으로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대상으로 그려질 뿐, 화자의 낙담이나 실망감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다.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언젠가 또다시 닥쳐올 전쟁에 대한 공포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의 ‘미친 바람’은 ‘이 골짜기에서 먼지를 품은 대상’으로 그려지며, 화자가 이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다는 설명을 고려해 볼 때, ‘맑고 깨끗한 공간’과 대비하기 위해 보여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따라

서 '미친 바람'을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의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가)의 '요런 자세'라는 시어는 불신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는 못마땅한 자세를 의미하며, 현실을 바꾸지 않고 순응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꽃'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의 '바위'는 화자가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이 자체가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여 삶을 회의하는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술 관계를 언제나 파악하세요. 바위가 삶을 회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필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인가요? 문학 총론 강좌에서는 이러한 연습을 통해 오답률을 최소한도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⑤ [E]: 날아가는 약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 소리꾼은 화자가 약새를 보며 떠올린 인물로 약새와 소리꾼이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약새의 울음과 소리꾼의 완창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A]: 화자는 약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약새 울음소리를 통해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린 것으로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의 풍경과 약새의 울음소리를 통해 완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B]: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텃텃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에서 소리꾼의 서글픈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C]: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있었던가.'라는 설의법을 통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이 우포늪에 있었다는 화자의 감탄 혹은 깨달음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서, 슬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아직 기쁨에 대한 접근이 덜 된 것입니다. 좀 더 기쁨 문제를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④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동편제 넘어가는 약새들은 상상의 세계입니다.(동편제는 주석을 보면 아시겠지만, 판소리의 유파입니다. 약새들이 동편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 상상의 세계입니다. 이를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라는 현실적 공간과 연결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입니다.

<이 문제, '대비'라는 단어, 그리고 해당 시에서 2010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가 떠올랐어야 합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죠 >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삐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뜰\* [질뿔]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삐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A]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삐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삐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삐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삐죽새』 -  
 \* 길뜯 : 길이 덜 든.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30A.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 ② 2연의 '실제의 삐죽새'는 '여러 마리의 삐죽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답 : ②(자, 선지의 구성 방식이 동일하죠?)**

31.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 ④ ㉠ :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티끌'과 관련된 내용은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는 구절로, 해당 자연에 티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맥락을 보세요. 먼지는 없었다고 앞에 문장에서 언급되지요? 그럼 티끌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보신 분들은 아마도 2번을 답으로 체크하고 가겠지요. 구문에 대한 꼼꼼한 미시적 독해가 필요합니다.>**

[오답 분석]

- ① ㉡ :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질은 단풍 빛에 ~ 흰 옅은 구름 조각'은 가을의 풍경을 드러내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② ㉢ :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오심암의 아름다운 풍경을 예술의 극치라고 표현한 것과 '홍진에 물들 것을 염려한다.'는 말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예술의 극치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버스가 들어오는 것은 자연의 뜻이 아니며 언제나 홍진에 물들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 ③ ㉣ :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오심암의 맑은 풍경에서 '겸손함과 순결함'을 이끌어 내는 것은 화자가 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⑤ ㉤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화자는 맑은 '오심암'의 풍경과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을 '먼지 낀 의복, 먼지 낀 몸뚱어리, 먼지 낀 내 마음'으로 나타내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32-34] 고전 시가

(가) 작자 미상, 「서경별곡」

(나) 조위, 「만분가」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분석]

- ④ (가)의 '쫓니노이다'와 (나)의 '빗취어든'은 모두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가) '쫓니노이다'는 앞 구절 '괴시란디'와 연결하면 임이 화자를 사랑해주신다면 화자가 임을 따라 쫓아가겠다는 화자의 바람으로 볼 수 있으며 '빗취어든'은 자신의 '한(恨)'이 뿌리 되고 가지가 되는 매화로 나타나 임의 옷에 비추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가)의 '서울'과 (나)의 '건덕궁'은 모두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가)의 서울은 서경이므로 현재 화자가 머무르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건덕궁'은 화자가 가고 싶은 공간으로 '건덕궁 가고지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인 임금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보면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② (가)의 ‘질삼뵈’와 (나)의 ‘빈 낙대’는 모두 화자가 현재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가)의 ‘질삼뵈’는 화자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여자들의 생업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화자가 회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화자가 ‘질삼뵈 버리고’라고 말한 것은 생업을 버리고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나)의 ‘빈 낙대’는 화자가 회피하지 않고 들고 가는 장면이 나타나는 소재입니다. 따라서 이미 선지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어긋나지요. 화자는 고결한 자신의 생애를 ‘죽림’이란 자연 공간에 붙이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하는 행동으로 낚시를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논리를 고려해 볼 때, ‘빈 낙대’와 ‘빈 배’ 모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③ (가)의 ‘우리꿈’과 (나)의 ‘슬피 우리’는 모두 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우리꿈’은 울면서 쫓아가겠다는 화자의 모습이며 (나)의 ‘슬피 우리’는 화자의 정서가 ‘두어 소리’에 투영된 것으로 모두 임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⑤ (가)의 ‘그츠리잇가’와 (나)의 ‘반기실가’는 모두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그츠리잇가’는 ‘신(信)’, 즉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설의법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과는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나)의 ‘반기실가’는 화자의 ‘한(恨)’이 투영된 매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자는 이 매화를 보고 임께서 반가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습니다.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을 가볍게 해석하면 ‘의문’ 정도로 해석해도 되지만, 걱정을 동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런데 (가) 자체가 자신의 미래 상황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확신과 관련이 있으니 해당 선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 ③번이라고 써서 틀리셨다면, 문학 공부를 대충 한 것에 가깝습니다. 언제나 주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문학의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경험 ‘자아’가 누구인지는 문학의 핵심이며 이를 문학 총론에서 다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2007 수능 만분가를 보시죠.>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 축루(空山 觸虜)\*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 만겁(輪廻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 가없는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가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공산 축루: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 \* 만장송: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 \* 침변: 베갯머리.
- \*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32A.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황상제’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존재이다.
- ② ‘공산 축루’, ‘외나무’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보여 준다.
- ③ ‘만장송’, ‘금강산 학’은 임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
- ④ ‘바람비 뿌린 소리’, ‘두어 소리’는 임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 ⑤ ‘침변에 시드는’은 임이 처한 현재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다 푸셨나요? 정답을 내는 방법까지 동일하죠? 답은 5번입니다.>

3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⑤ ‘ㄹ을 들 볼근 밤’과 월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입과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

‘ㄹ을 들 볼근 밤’은 가을 밤의 정서를 나타내기 위한 배경이며, ‘월중’은 화자의 ‘한(恨)’이 투영된 매화가 입의 옷에 비추어지길 바라는 시간적 배경입니다. 둘 다 입과 재회하는 순간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답 분석]

① ‘입자 얹지 구닐’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상승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입자 얹지 구닐’던은 ‘공산 축루’와 연결하여 화자 자신을 텅빈 산의 해골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학’이 되어 일만 이천봉을 마음껏 솟아오른다고 표현한 것을 보아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상승적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② ‘만장송’과 ‘매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입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하고 있다.

‘만장송’은 소나무를 의미하고, 이 소나무와 ‘매화’는 ‘세한삼우’[歲寒三友]에 속하는 것으로 추운 겨울에도 자신의 모습을 간직한다 해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입을 향한 변함없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입에게 알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는 모두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님의 귀에 들리거나’와 ‘님의 귀에 들리기도’를 통해 입에게 알리고 싶은 소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비 뿌린 소리’는 앞 구절 ‘만장송’과 연결시켜 화자의 지조와, ‘두어 소리’는 슬피 우는 소리로 ‘한(恨)’과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화자의 심정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매화’의 ‘뿌리’와 ‘가지’를 활용하여 ‘한’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매화’의 앞의 구절 ‘한(恨)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라는 구절을 통해 화자의 ‘한’이 매화의 뿌리가 되고, 눈물이 가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가 되어 ‘님의 집 창밖’에 있고 싶다”에는

화자의 바람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눈물’도 ‘한’으로 볼 수 있기에 ‘한’이라는 정서가 매화의 뿌리와 나무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 수능도 이와 같은 선지가 등장했어요. ① ㉠ : ‘한’과 ‘눈물’의 관계를 ‘뿌리’와 ‘가지’에 비유하여 형상화했군.>

34.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② [A]에서는 ‘신’을 [B]에서는 ‘붉은 마음’을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하였군.

[A]와 [B]의 내용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A]의 ‘신(信)’과 대응되는 것은 ‘긴( 끈 )’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며 [B]의 ‘붉은 마음’ 또한 ‘신(信)’과 같이 ‘끈’에 대응되는 시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위’는 구슬이 떨어져 깨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뜻하기에 ‘신(信), 붉은 마음’이 형상화 되었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① [A]와 [B]에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군.

‘구슬’은 떨어져도 ‘긴,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구슬’과 ‘긴, 끈’이 대응되는 소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긴’과 ‘끈’이 변함없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때,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A]와 [B]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긴,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천 년(즈믄해)을 떨어져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즈리잇가’와 ‘어찌 바뀌리오’라는 설의법을 통해 바뀌지 않는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④ [A]와 [B]를 보니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군.

[A]와 [B] 모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A]는 고려가요 형식으로 [B]는 한시 형식으로 나타나 각각 다른 형식으로 수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A]와 [B]를 보니 여음구의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군.

[A]는 고려가요로 후렴구, 여음구가 특징인 작품입니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아즐가’, ‘나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는 한시 형식으로 해당 부분에는 여음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35~38 독서

[35~38] 혈흔 조사용 LFIA 검사 키트

[지문 분석]

키트의 구조, 그리고 키트의 방식, 키트의 정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키트의 공통적인 구조, 원리와 방식에 따른 원리 차이를 헛갈리지 않는 것으로, 공통적인 원리를 말할 때는 '검사선의 반응선으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을 뿐 발색이 되었을 때 무조건 목표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함정입니다.

35. 밑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③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LFIA 키트의 반응막에는 검사선과 표준선이 있는데, 검사선의 발색 여부를 통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표준선의 발색 여부를 통해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았다면 이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단할 뿐입니다. 직접 방식인 경우에는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았다면 목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고, 경쟁 방식인 경우에는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표준선의 발색은 목표 성분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판단하므로, 정상적인 LFIA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았다더라도 표준선은 발색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LFIA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LFIA 키트에는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있습니다. 2문단에서는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가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를 흡수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고 언급합니다. 즉, 시료 패드에서 먼저 시료를 흡수하고, 반응막을 지나 남은 시료를 흡수 패드에서 흡수하므로 두 패드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통점 찾기는 평가원의 핵심 사항, 2015 수능 사회 지문, 2017 수능 인문 지문을 참조하세요!)

② LFIA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

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 반응에는 항원과 항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LFIA 키트에 있는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고, 이들이 복합체와 결합한 시료와 반응합니다. 즉, 반응막의 항체를 통해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물질은 항원입니다.

(문법 총론을 배운 학생들이면, '은는도만' 보조사 배웠죠? 이런 것들이 독서 지문에 크리티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④ LFIA 키트에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집니다. 이 때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나며, 이 반응선의 발색 여부로 목표 성분의 유무와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LFIA 키트에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표지물질을 왜 붙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⑤ LFIA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LFIA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습니다. 가령, 직접 방식의 키트라도 위양성의 결과가 나온 경우 실제로 시료가 없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LFIA 키트 중 경쟁 방식을 이용한 키트라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면서 발색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3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분석]

① ㉠은 ㉡과 달리,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은 직접 방식, ㉡은 경쟁 방식입니다. 직접 방식의 LFIA 키트에서 시료 속의 목표 물질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 결합 패드의 복합체와 결합합니다. 직접 방식에서 쓰이는 복합체는 목표 물질과 결합하는 항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 항체에 결합합니다. 이와 달리 경쟁 방식에서는 복합체에 포함하는 특정 성분으로 항체가 아닌 목표 물질 자체를 쓰므로, 검사선

에 도달하기 전까지 시료의 목표 물질은 항체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② ㉠은 ㉠과 달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

직접 방식에서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검사선의 항체와 목표 성분이 결합하면서 발색선을 나타낼 것입니다.

③ ㉠은 ㉠과 달리,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겠군.

LFIA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의 띠가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이 중 시료 패드에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 즉 시료 패드에서 먼 가닥이 표준선입니다. 이는 직접 방식이든 경쟁 방식이든 동일하게 정해진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의 키트이든 시료는 표준선이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도달합니다.

④ ㉠은 ㉠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지 않았겠군.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의 차이는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을 때 반응선의 발색 여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표준선은 정상적으로 검사가 진행되었을 때 발색되며, 이는 두 방식의 키트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검사로 목표 성분을 시료에서 검출했다면 어떤 방식의 키트이든 반드시 최소한 하나의 반응선, 즉 표준선의 반응선이 나타날 것입니다.

⑤ ㉠과 ㉠은 모두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 물질과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하겠군.

LFIA 키트의 결합 물질에 있는 복합체는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집니다. 이 때 직접 방식이나 경쟁 방식이냐에 따라 특정 물질이 항체인지 목표 물질 그 자체인지가 달라지며 이들이 목표 성분과 결합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의 키트이든 목표 성분이 표지 물질과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37.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와 B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정답 분석]**

A                  B

④                  위음성          진음성

민감도가 높을수록, 목표 성분이 시료에 실제로 존재할 때를 100%로 상정할 때,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이 은 것입니다. 이는, 키트가 실제 시료가 있음에도 이를 음성을 판단한 비율이 적음을 내포합니다. 자체가 따라서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진양성인 경우가 많고 위음성인 경우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이도가 높을수록,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때를 100%로 보았을 때,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단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키트가 양성 판정을 했을 때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이도가 높다는 것은 진음성인 경우가 많고 위양성인 경우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 위음성이 적은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고, 진음성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가 높습니다.

*<이 문제에서 '적을수록'을 못 봤다면, 2012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가 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a$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

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30. ㉠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기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b라고 할 때, 생산량을 Qb보다 (㉡) 공장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 생산량을 Qb보다 (㉣)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       |     |     |
|-------|-----|-----|
| ㉡     | ㉢   | ㉣   |
| ① 줄이면 | 크다면 | 줄이는 |
| ② 줄이면 | 크다면 | 늘리는 |
| ③ 줄이면 | 작다면 | 줄이는 |
| ④ 늘리면 | 작다면 | 줄이는 |
| ⑤ 늘리면 | 작다면 | 늘리는 |

답이 ①번입니다. '피해 감소'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번 기출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번 기출은 '적을수록'이라고 함정을 파 놓았으니까요. ㉡에 '늘리면'은 무조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분석]

㉡ ㉠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겠군.

㉠가 어떤 방식의 LFIA 키트냐에 따라 복합체의 표지 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경쟁 방식의 키트였다면 표지 물질에 목표 물질인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었겠지만, 직접 방식의 키트였다면 살모넬라균이 아니라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가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답 분석]

① ㉠를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

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겠군.

LFIA 키트는 살모넬라균(항원)과 항체 사이의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살모넬라균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1문단에서는 항체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LFIA 키트가 개발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의 내용은 옳습니다.

③ ㉡를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겠군.

2문단을 보면 LFIA 키트에서 액상의 시료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④ ㉡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겠군.

현재 살모넬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므로, 위음성이 적어야 합니다. 위음성이 많을 경우 즉, 민감도가 떨어질 경우는 실제 항원이 있음에도 이를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이므로 병원성 세균이 유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살모넬라균이 있을 때 키트가 양성 판정을 내리는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이는 오염 의심 시료에서는 살모넬라균이 있는데도 키트가 음성 판정을 내리는 비율이 낮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키트의 특이도보다는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⑤ ㉡를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 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겠군.

㉡는 기존의 분석법보다 정확도가 낮지만 저렴한 키트입니다. 따라서 LFIA 키트의 정확도, 이 중에서도 특이도가 기존의 분석법보다 낮아 키트가 실제로 살모넬라균이 없음에도 양성 판정을 내리는 위양성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39~45 문학

[39~42]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옹고집전」

39.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분석]

③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특히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은 ‘참옹고집’과 관련이 있으니 이를 중심으로 서술 부분을 집중하여 읽으면 되지요.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날날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 같지도 모르는 지라.’라는 부분과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에서 ‘참옹고집’의 답답한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송사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음이 밝혀진다.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을 벌을 내리기 위해 온 것이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송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란 이익과 손해로 얽혀 있는 사이를 의미합니다.
- ② 송사 결과에 대한 행인들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상반된 예측’을 하는 주체로 그려지지 않고 대체로 ‘짚옹고집’이 만나 말을 건네는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죽마고우로 지냈다’는 말도 건네고, ‘노잣돈으로 보태 쓰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데리고 ‘참옹고집’에 대한 말도 건네고 있습니다. 행인들은 이를 보고 ‘누구도 알아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상반된 예측이라 설명할 수 없지요. 이 선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판단하면 됩니다.
- ④ 송사 가는 이들 간에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송사 가는 이들’은 ‘두 옹고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대화 없이 갈 길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⑤ 송사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다.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은 많습니니다. ‘또 하나를 보면’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③ ㉢: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찾아갑니다. ㉢을 보니 ‘짚옹고집’은 도술을 통해 근처에 참옹고집이 온 것을 알고 있군요. 이 문맥만 고려한다면 마치 ㉢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대화를 보면, “거짓 옹가 놈은 데려 오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고려해 볼 때, 그를 의심하고 수상히 여긴다는 말은 문맥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를 생각하고 올바른 깨달음을 주기 위해 데려오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오답 분석]

① ㉠: ‘마누라’는 집에 돌아온 이를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

해당 부분을 보면, ‘짚옹고집’이 집으로 돌아와서 ‘마누라’에게 이긴 내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누라’는 ‘짚옹고집’을 ‘참옹고집’인 줄 알고, 아이고 우리 서방님 고생했구먼이란 뉘앙스로 위로하고 있지요. 이로 볼 때, ‘집에 돌아온 이’ 즉, ‘짚옹고집’을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은 타당합니다.

② ㉡: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참옹고집’은 전전결식을 하다가 ‘옹고집’이 활인구제한 단 말을 듣고 분심을 가집니다. 이때 ‘분심’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분심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참옹고집의 상황을 보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 말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 바로 ‘남의 재물(=참옹고집 것)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짚옹고집이 하는 행동)’을 보자니 속이 쓰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설명은 매우 적절하지요.

④ ㉣: ‘참옹고집’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러워하고 있다.

㉣을 보면 ‘참옹고집’이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에 있고, 짚옹고집이 가지는 모든 것들이 본래 자기 것이니 서러워하는 것은 너무도 타당한 설명이지요.

⑤ ㉢: ‘참옹고집’은 ‘사환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을 보면 ‘참옹고집’은 갈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즉, ‘사환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①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짚옹고집’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보기>를 분석하면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짚옹고집’을 설정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소외’에 주목해 둔 다음, 다음을 분석해야 합니다. ‘참옹고집’은 일단 부유층으로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는 점,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를 봅시다.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하는 주체는 ‘짚옹고집’입니다. 자신이 ‘참옹고집’인 척 해야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한 이야기일 뿐,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참옹고집’의 행적이 ‘짚옹고집’을 통해 언급됨을 알 수 있군.

<보기>를 분석하면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짚옹고집’을 설정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소외’에 주목해 둔 다음, 다음을 분석해야 합니다. ‘참옹고집’은 일단 부유층으로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는 점,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를 봅시다.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의 주체는 ‘참옹고집’이며, 이러한 말을 하는 주체는 ‘짚옹고집’입니다. 그리고 ‘짚옹고집’은 이러한 말을 하고 난 후 ‘활인구제’를 하겠다며 선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참옹고집’은 기존에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였고, 이러한 행적은 ‘짚옹고집’을 통해 언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참옹고집’의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됨을 알 수 있군.

<보기>를 분석하면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짚옹고집’을 설정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소외’에 주목해 둔 다음, 다음을 분석해야 합니다. ‘참옹고집’은 일단 부유층으로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는

점,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를 봅시다.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하는 주체는 ‘짚옹고집’입니다. <보기>에서 부유층의 책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를 행한 사람은 ‘참옹고집’이 아니라 ‘짚옹고집’이지요. 이로 볼 때, ‘참옹고집’의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되었다는 말은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④ ‘짚옹고집’이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줄 수 있을 만큼 ‘참옹고집’의 재물이 많았다는 데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키는 ‘참옹고집’의 모습이 확인되는군.

<보기>를 분석하면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짚옹고집’을 설정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소외’에 주목해 둔 다음, 다음을 분석해야 합니다. ‘참옹고집’은 일단 부유층으로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는 점,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를 봅시다.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는 주체는 ‘참옹고집’이 아니라 ‘짚옹고집’이 합니다. 백 냥 천 냥은 꽤 큰돈이므로, ‘참옹고집’의 재물이 많다고 파악할 수 있지요. 또한 사람들이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할 정도이니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기>에서도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⑤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걸식’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겪는 ‘참옹고집’의 처지가 확인되는군.

<보기>를 분석하면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짚옹고집’을 설정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소외’에 주목해 둔 다음, 다음을 분석해야 합니다. ‘참옹고집’은 일단 부유층으로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는 점,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를 봅시다. ‘전전걸식’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참옹고집’입니다. ‘짚옹고집’으로부터 자리를 빼앗기고 사는 모습은 <보기>에서 말하는 ‘소외’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상황인 것이지요. 이로 볼 때, 해당 선지는 타당합니다.

42. <보기>는 「옹고집전」 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 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④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는군.

둘 다 ‘참옹고집’에게 ‘개과하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B]에서는 ‘짚옹고집’에 의한, <보기>에서는 ‘도사’에 의한 발언이 나타나 있지요. 모두 인물의 발화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여기까지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발화 모두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B]에서는 개과하라는 말을 하고 사라지고 난 후, 개과천선을 한 것으로 보아, 그의 발화가 ‘참옹고집’이 개과천선을 하게 된 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도사를 만난 후 ‘제발 살려 주세요.’라고 애걸하지요. 그리고 개과천선을 하겠다는 뉘앙스가 담긴 말도 먼저 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고려해 볼 때, 발화가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답 분석]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까지도 고려하였군.

해당 선지는 동시에 유사한 장면을 비교하여 문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에 선지를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B]에서는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라’ 합니다. 즉, 일치 불일치를 판단하면 됩니다. <보기>에서도 ‘정상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준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 역시 타당합니다. 다음은 이제 후반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이’는 바로 ‘짚옹고집’을 가리키는 말로, 해당 ‘용심’은 ‘짚옹고집’ 것이므로,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의 경우 ‘정상이 불쌍하고의 주체는 ‘참옹고집’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이의 처지를 고려하였다는 말은 타당합니다. 참고로 정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정과 형편.’ 또는 ‘딱하거나 가엾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상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정상어학원?) 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가 가엾다는 것은 최소 정상이 너의 처자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며, 그러므로 자*

*기 자신에 가깝습니다. 즉, 용서받는 이의 처지를 고려한 것이지요.)*

②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이 선지도 하나씩 쪼개서 분석해야 합니다. [B]에서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라는 서술을 보아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보기> 역시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효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B]는 ‘후생’을 고려하는 것을 보아 사회까지 확대하여 생각한 반면에 <보기>는 ‘처자’를 고려한 것을 보아 가족의 피해까지 고려한 것을 보입니다. 따라서 타당한 설명입니다.

③ ‘참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둘다 ‘참옹고집’의 악행이 적혀 있습니다. [B]는 첫째로는 부모 박대, 둘째로는 유결산승 욕보인 것, 그리고 <보기>는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한 것, 불도를 능멸한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로 볼 때, 모두 ‘참옹고집’은 인륜적이지 못한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따라서 타당한 설명입니다.

⑤ ‘참옹고집’을 혼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는군.

[B]에서 ‘짚옹고집’은 ‘좌상에 나앉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뭉음이라’는 서술을 고려해 볼 때, ‘허수아비’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 역시 ‘도사’가 ‘홀연 간데없거늘’이란 서술을 고려할 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비현실적인 요소가 담겨 있으니 신이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지요. 따라서 해당 선지는 타당합니다.

[43~45] 현대 소설

양귀자, 「한계령」

4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분석]

①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  
 서술자는 1인칭으로, ‘은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독백적 진술’이란 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자주 나타나는 서술 방식입니다. 특히 이러한 진술 방식은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기 쉽기 때문에 서술 부분에서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②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삽화처럼 나열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킨다.  
 삽화란 다양한 이야기가 병렬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작품은 1인칭 주인공이 ‘은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데에 주목하고 있을 뿐,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삽화처럼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해설하고 사건의 의미를 직접 제시한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란 의미는 1인칭, 3인칭으로 구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성 자체가 ‘액자식’인지를 따지라는 의미입니다. ‘액자식 구성’은 기본적으로 ‘외화 이야기 - 내화 이야기 - (다시) 외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해당 지문은 1인칭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위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서술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④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로 바뀌면서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서술자는 오로지 1인칭 ‘나’로만 존재하며, 다양한 인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물 간의 갈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서술자가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하여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1인칭 서술자인 ‘나’는 ‘은자’의 생각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제 은자는 가시 돋친 ~ 작정이었다.’ 이 부분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자’는 나에게 있어 추억의 마지막 표지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감을 드러낸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반감이란 ‘반대하거나 반항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44. 윗글의 ‘나’와 ‘은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분석]

⑤ ‘은자’는 현재의 자신을 ‘나’에게 보여 주려 하고 있고, ‘나’는 ‘은자’를 통해 옛 기억을 돌아보고 있다.  
 ‘은자’의 말 중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이었다.’는 것, ‘고향 친구 한번 만나 보려니까’라는 그녀의 말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자신을 ‘나’에게 보여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현실 속의 ‘은자’를 만나기를 주저하며 유년 시절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은자’를 통해 옛 기억을 돌아보고 있다는 말은 타당합니다.

[오답 분석]

① ‘은자’는 가수로서의 성공을, ‘나’는 작가로서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해당 선지는 인물의 성향을 잘못 분석한 경우입니다. ‘은자’는 ‘미나 박’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었을 것입니다. 즉,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를 넘고 넘는 존재입니다. ‘나’는 작가가 직업이긴 하지만, 이 지문에서는 ‘작가로서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나’는 ‘은자’의 전화로부터 심리적 위안을 얻으며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나’는 오히려 ‘은자’로 인해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자’는 ‘나’에 있어, 고향을 추억하게 할 수 있는 ‘표지판’과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나는 현실 속에서 은자를 만나게 될 경우, ‘변해버린 고향’처럼 은자와의 추억도 변질될 것이라 생각하여 불안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고민을 한 채 은자를 보러 가기로 한 토요일 밤을 집에서 보내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은자’의 전화로부터 심리적 위안을 얻는다거나 갈등을 해소한다거나 하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은자’는 ‘나’와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고, ‘나’는 ‘은자’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은자’는 ‘나’를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전화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말로도 ‘고향 친구 한번 만나보려니까 되게 힘드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의 추억의 표지판인 ‘은자’를 만나게 되면 위안을 주는 유년 시절이 사라지게 될까봐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하지도 못한 채 갈등만 하고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은자’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볼 수 없습니다.

④ ‘나’는 ‘은자’가 도도하다고 여기고 있고, ‘은자’는 ‘나’가

체면을 차린다고 여기고 있다.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옛 친구 만나러니깐 체면이 안서데? 그러지 마라. 네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오늘의 미나 박이 되기까지 참 술하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라는 ‘은자’의 말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은자’가 ‘나’를 도도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자’가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자’가 갈등하는 이유는 ‘은자’가 도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자’가 자신의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표지판이기 때문입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분석]**

② ‘몸으로 밀어 가’야 할 ‘굳건한 쇠문’을 ‘탐구하고 사색’하려 하는 ‘그들’에게서 ‘나’는 양면성을 발견하는군.

<보기>에서 말하는 양면성이란, ‘대립적인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지에서 말하는 ‘몸으로 밀어 가’야 할 행위는 그들에게 있어 ‘인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굳건한 쇠문’은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대상이지요. 그러나 ‘탐구하고 사색’하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다’로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굳건한 쇠문’을 탐구하고 사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문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하세요. 지문에서 분명, ‘사색이 아니라, 두들기는 쇠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하는데도, ‘있는 힘을 다해 기어’ 오르고 있는 ‘그들’에게서 ‘나’는 양면성을 발견하는군.

<보기>에서 말하는 양면성이란, ‘대립적인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작품 「한계령」에서는 인물이 바라보는 대상, 인물의 행위, 의식의 대립, 인물의 심리 등에서 ‘양면성’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지에서 말하는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와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오르고 있는’ 행위는 서로 대립됩니다. 즉, 인물의 행동이 대립되는 경우이지요. 따라서 ‘그들’에게서 ‘나’는 양면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③ ‘일 년에 한 번씩’ ‘고향 동네에 가’면서도,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서 양면성이 나타나는군.

<보기>에서 말하는 양면성이란, ‘대립적인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지에서 ‘고향에 가다’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다’는 설명은 서로 대립됩니다. 이러한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어떤 대상을 두고 생각하는 의식이 서로 대립된다 할 수 있겠네요. 이 역시 양면성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④ ‘변해’ 버린 ‘큰오빠’와 ‘온전히 남아’ 있는 ‘큰오빠’가 ‘나’의 생각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에서 양면성이 나타나는군.

<보기>에서 말하는 양면성이란, ‘대립적인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 오빠에 대한 정보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큰오빠까지도 다 변하였지만’, ‘은자만 떠올리면 ~ 큰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문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해버린 큰오빠’는 현실 속의 오빠입니다. 그러나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는 ‘은자’와 마찬가지로 유년 시절에 있는 과거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아, 양면성이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해버린 오빠와 온전히 남아있는 오빠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문을 제대로 다시 읽길 바랍니다! 양면성은 역설적, 양극적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⑤ ‘은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만나자는 ‘은자’의 ‘전화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에서 양면성이 나타나는군.

<보기>에서 말하는 양면성이란, ‘대립적인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지에서 ‘은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와 ‘전화를 기다린다.’는 태도는 서로 대립됩니다. 지문에서도 역시 현실 속의 은자를 직접 대면하자 생각하니 고민을 많이 하지요. 그렇게 고민을 하며 하루를 보내다가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은자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만나고 싶지 않았다면 전화를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되는 태도에서 양면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선지가 중의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때는 되는 선지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가령, ‘만나자는 은자의 전화’를 기다리는 나인지, 만나자는 ‘은자’가 있고 그 은자에 전화를 기다리는 나인지 중의적 표현이 가능하다면 선지의 말이 정합적인 후자쪽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전에 ②번 선지에서 답을 체크하셨어야 합니다.>*

<45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선비 유영이 꿈에서, 죽은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안평대군은 궁녀 열 명을 뽑아 가르치면서 궁 밖과의 인연을 금했으나, 궁녀 운영은 김 진사와 사랑에 빠졌다.

김 진사의 노비인 특의 꾀에 따라 들은 도망가려고 운영의 의복과 재물을 빼냈다.

진사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일렀습니다.

“너는 재물을 잘 지키고 있었지? 내가 장차 그것을 다 팔아서 부처께 지성으로 발원하여 오래된 약속을 실천하리라.”

특은 집으로 돌아가 혼잣말로 일렀습니다.

“궁녀가 나오지 못했으니, 그 재물은 하늘이 내게 준 것이로다.”

특은 벽을 향해 남몰래 웃음을 지었으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특이 자기 옷을 찢고 코를 스스로 때려, 피를 온몸에 흠뻑 바르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달려 들어와 뜰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절한 척했습니다. 진사는 특이 죽으면 재물 묻은 곳을 알 수 없게 될까 염려되어, 약을 입에 흘려 넣는 등 특을 살려 냈습니다. 그러자 특이 십여 일 만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산 속에서 지키고 있는데 많은 도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박살날 것 같아 죽음을 다해 달아나 겨우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물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런 위험에 처했겠습니까? 운명이 이리도 험한데 어찌 빨리 죽지 않는고!”

말을 마친 특은 발로 땅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진사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보냈다가, 뒤늦게야 특의 소행을 알고 노비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시에 특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비녀 한 쌍과 거울 하나만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장물로 삼아 관가에 고발하여 나머지 물건들도 찾고 싶었으나,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진사는 그 재물이 없으면 불공을 드릴 수 없었기에 특을 죽이고 싶었으나,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 애써 침묵하였습니다.

특은 자기 죄를 알고, 궁궐 담장 아래에 사는 맹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 새벽에 이 궁궐 담장 밖을 지나가는데, 웬놈이 궁궐 안에서 서쪽 담을 넘어 나왔소. 도적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자, 그놈은 가졌던 물건을 버리고 달아났소. 나는 그 물건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자가 찾아 가기를 기다렸소. 그런데 우리 주인은 본래 염치가 없어서 내가 물건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몸소 내 집에 와서 그 물건들을 찾았소. 내가 다른 보물은 없고 단지 비녀와 거울 두 가지만 있다고 대답하자, 주인은 몸소 수색을 해서 과연 그 두 물건을 찾아내었소. 주인은 그것도 부족해서 바야흐로 나를 죽

이려고 하오. 그래서 내가 달아나려고 하는데, 달아나면 길(吉)하겠소?”

맹인이 말했습니다.

“길하다.”

그때 맹인의 이웃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특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떤 사람인데, 이처럼 노비에게 포악하게 구느냐?”

특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나이는 어리나 문장에 능해서 조만간 틀림없이 급제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탐욕스러우니, 훗날 벼슬길에 올라 조정에 섰을 때 마음 씩씩이가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전파되어 궁중으로 들어가 대군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군은 크게 화가 나서 남궁 사람들에겐 서궁을 수색하게 하니, 제 의복과 보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군은 서궁의 궁녀 다섯 사람을 붙잡아 뜰 가운데 세우고, 눈앞에 형장을 엄히 갖춘 다음 명령하였습니다.

“이 다섯 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라.”

대군은 또 곤장을 잡은 사람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곤장 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때려라.”

이에 다섯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만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도록 해라.”

은섬이 말했습니다.

“남녀의 정은 귀하든 천하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있는 법입니다. 한번 깊은 궁에 갇혀서 홀로 지내니, 꽃을 보면 눈물 흘리고 달을 대하여 슬퍼했지요. 매실을 꾀꼬리에게 던져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발을 쳐서 제비가 쌍쌍이 깃들지 못하게 함은 부러움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궁궐의 담을 넘으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음에도 저희가 그러하지 않은 것은 어찌 힘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다만 저희는 오로지 주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궁중에서 말라 죽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군께서는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죽이려 하시니, 저희들은 황천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비취가 초사(招辭)\*를 올려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보살피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지라 저희들은 감동하고 두려워하여 오로지 글짓기와 거문고 연주만을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찢지 못할 악명이 서궁에 미쳤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초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죄인의 진술.

45A.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운영전」의 액자 속 이야기는 주인공이 서술한 것이어서, 서사는 운영과 김 진사의 시선에 포착된 현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예컨대 운영을 포함한 궁녀들을 억압하는 ‘대군’은 그들에게 베푼 은혜로 인해 악인으로 단정되지 않는 반면, 음모를 꾸민 ‘특’은 간교한 인물로만 부각된다. 이런 인물들의 개입으로 인해 금지된 사랑을 하는 주인공의 위기도 여느 고전 소설과 달리 현실적 긴장감을 띠게 된다. 이로써 이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보다 첨예하게 드러낸다.

- ① 운영도 ‘대군’을 배신했지만 ‘특’의 배신만이 부각되는 것은 운영이 서술자이기 때문이군.
- ② 달아나면 길할 것이라고 말한 ‘맹인’의 태도 때문에 주인공의 금지된 사랑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군.
- ③ ‘특’이 남몰래 웃음을 지었다는 진술에서 그의 간교한 성격을 드러내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느껴지는군.
- ④ 궁녀들을 박해하는 ‘대군’이 악인으로 단정되지 않는 까닭이 ‘대군’의 은혜를 인정하는 ‘비취’의 말에서 나타나는군.
- ⑤ 궁녀들에게 내려진 금기를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지킬 수 밖에 없었다는 ‘은섬’의 말에 현실의 문제가 드러나는군.

<답은 ②번입니다. 왜 풀게 했냐고요? 맹인은 달아나면 길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의 금지된 사랑도 위기에 처하지요. 하지만, 맹인의 태도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 없는 관계를 연결성이 있는 듯 착각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다소 있으니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